

다시 한번: 여자들은 잠잠하고 복종해야 한다

무엇이 저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4:34-35의 짧은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게 할까요? 저는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두 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문비평적인 질문도 있고 신학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절에는 엄청난 영향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잘못된 추론을 따르지 않으려고, 저 자신을 위해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은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작업과 토론을 위한 바탕입니다. 이 글은 이 두 절에 관한 자료를 모은 것이며, 많은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용은 대부분 영어에서 옮긴 것입니다. Logos 프로그램,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 그리고 탁월한 번역 프로그램 www.deepl.com 덕분에 이 작업의 수고가 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에 이 글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짧은 도입과 본문

여자의 잠잠함에 관한 바울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설교자, 교사, 지도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선포/설교에도, 가르침에도, 기도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매가, 특히 형제운동의 우파에서 좌파에 이르는 여러 모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냅니다. 때로는, 어쩌면 짐작하는 것보다 더 자주, 마음속의 질문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광범위하고, 단호하며,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읽거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관해 무언가를 보여 줍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특히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이 질문을 따라가 봅니다. 몇몇 주석가, 언어 전문가, 신학자나 성경 교사들과 그들의 설명을 모으고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들에 대해 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모든 해석자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해당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고, 게다가 우리의 앎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모든 겸손과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분명하며 그 답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 아니면 아니요가 있을 뿐입니다. 절대적 침묵, 예입니까 아니요입니까? 말하는 것, 예입니까 아니요입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자매가 잠잠히 있는 역할에 만족하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예배도 잘 돌아갑니다. 자매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배는 진행되며,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관행이 옳은가 하는 질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결과와 영향을 다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다루려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문맥 때문에 31절부터 씁니다.

고린도전서 14:31-40, 독일어 Elberfelder 성경(독일어 성경 번역본) CSV판에 따라, 여기서는 독일어에서 번역

31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할 수 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32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제어를 받는다.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모든 모임에서와 같이.

34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35 그러나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36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37 누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 38 그러나 누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있으라. 39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40 모든 일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규정: 여자들은 예배 모임에서 잠잠해야 한다.

이유: (1)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2)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해야 한다.

규칙: 배우기를 원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

근거: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성을 옷 보관소에 맡겨 두지 않기

절대적 침묵 명령을 지지하는 많은 형제가,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며 과학에 적대적인 것도 아니라고 변호합니다. 다시 말해, 이성을 꺼 버리지 않고도 창조주와 창조를 믿을 수 있고, 부활과 기적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성경 읽기와 성경 이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만큼 꼼꼼하게, 그리고 동시에 결과에 열린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연구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교회 생활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밝혀 둡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영감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논란이 많고 수십 년 동안 뜨겁게 논의되어 온 이 본문에 다시 한번 다가갑니다. 제가 많은 선입견과 지식과 무지, 그리고 저를 형성한 영향들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저 최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저의 (조명받은) 이성을 통해 이 두 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조종당했다는 모든 혐의를 거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침묵 명령을 강하게 고집하는 모든 형제자매가, 누군가 다른 견해나 심지어 정반대의 견해에 이르면 주문처럼 되풀이하는 상투적인 비난입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과 권고는 이렇습니다. "본문은 단순하고 분명하며 명확해서 오해할 수가 없다.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 봅시다. 고린도전서를 읽어 가면, 잘 알려져 있듯이 11:5에서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순전히 가정적으로라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14장을 읽지 않았으니까요. 곧 여자가 이것을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4장을 읽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곧 남자와 여자가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가 형제들이라는 말과 남성 대명사를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두 성별이 다 의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총칭적 남성형과 비슷하거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임은 33절까지 성별과 관련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34절과 35절이 나오는데, 이 두 절은 적어도 첫눈에는 단호하게 자매들의 참여를 배제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있는 명령이나 전통에 기대는 듯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 언급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이 바울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어디에서도, 정말 그 어디에서도 그런 명령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명령도 없고,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물음표를 붙여도 될 것입니다.

모든 여자가 잠잠해야 한다면, 이것을 예외라고 말하는 것은 딱 맞지 않습니다. 참석한 사람의 절반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외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무마하는 표현이며, 전혀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참석자의 50%가 아니라 아마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유가 시작됩니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잠잠히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놓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의 법칙에 따라, 예배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남성들은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교만하게 자신을 높인다는 뜻입니까? 또는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한 자매가 겸손한 복종의 태도로 – 그런 태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어쩌면 한 형제의 요청을 받고 무언가를 말한다면 (기도, 성경 봉독, 예언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복종의 정신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순하고 차분하게 참여하는 것, 어쩌면 질문에 대답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복종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복종과 같은 것으로 놓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늦어도 여기서 두 번째로 고개를 가웃하게 되고,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딘가 복종의 태도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복종은 율법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많은 주석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드러나듯이, 가장 뛰어난 주석가들조차 어떤 율법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약 전체를 보아도 그런 복종의 율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율법도 없고, 구약의 전반적인 기초라고 할 만한 율법도 없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이 절들이 말을 건네는 문맥, 곧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신자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구성해야 하고, 가능한 설명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그 설명은 구체적인 본문을 넘어 반드시 신약 가르침 전체의 틀에도 맞아야 합니다.

이제 여자의 잠잠함에 대한 이유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그렇다면 이것은 여자에 대한 엄격한 침묵 명령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까? 배우의 문제, 곧 무지의 문제입니까? 집에서 물어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모임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본문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 침묵 명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아마 모든 여자가 아니라 일부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남편이 있거나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요) 모임에서 발언한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질문을 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혼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그저 소란과 불편함만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도발적으로, 너무 집요하게, 끈질기게, 혹은 비판적으로 물었습니까?

모임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배워도 되고 배워야 하는 곳, 여자도 남자도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이 도움이 된다면, 실제로 대개 도움이 되는데, 질문은 예배의 일부가 되어도 되고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교회에게 질문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멋진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이해되는가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의 관심사가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1세기에는 교회, 곧 예배 모임이 배우는 곳이었습니니다. 철저하게 조직된 교회 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랐습니니다. 그곳이 아니면 어디였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에는 질문이 따릅니다. 물론 적절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곧바로 다시 여자들에게 질문을 금하고, 오직 집에서 남편에게만 물으라고 지시해야 했다는 것입니까? 교회 대신 집에서 배우라는 것입니까?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발치에 앉아 배우는 것은 그토록 자주 이상으로, 거의 낭만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도 그것이 통하게 해 주십시오. 배우고, 조심스럽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잠잠하라!"일까요?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흐름으로 보면, 이 말하는 것을 일부 여자들의 품위 없는 질문 공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부끄럽거나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구약의 가증한 것들과 비슷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몇몇 나라나 나라를 넘어선 문화들에 여전히 있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점잖지 못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수치는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여자들이 남편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것을 수치로 느꼈을 외부 사람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문을 단순화하여 절대적 침묵 명령/발언 금지를 읽어 내고, 그럼으로써 제 생각에는 이성을 웃 보관소에 맡겨 두는 그런 확신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 절들의 뜻을 설득력 있게 찾으려면 적어도 다음 문제들이 열려 있습니다.

- 침묵을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 이것이 고린도의 모임들, 곧 그곳의 가정 모임들에서 실천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모임에서 실천되는 것입니까?
- 이것이 바울 이전에도 통상적인 관습이었습니까? 혹은 그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 단순히 잠잠한 것이 곧 복종입니까?
- 바울이 근거로 삼는 권위 있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 한 자매가 참여할 때 생긴다는 수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 덧붙여: 이 두 절은 어쩌면 인용이 아닐까요? 바울이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는 바로 그 요구를 반박하려고 인용하는 것 말입니다.
- 덧붙여: 실제로 이 절들이 후대에 삽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절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혹은 어느 해석자에게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이 글 전체의 끝에서 더 말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자의 잠잠함에 관한 이 본문을 두고 신학자들, 성경에 충실한 해석자들의 주석을 따라가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형제운동의 해석들

이어서 제가 접할 수 있었던 몇몇 글을 소개합니다. 이 저자들에게는 더 많은 글이 있겠지만, 여기 인용한 글들만으로도 좋은 개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J. N. 다비(J. N. Darby)

Notes of Readings on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34절은 율법의 기조이며, 어쩌면 특정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점에 대해 오해의 여지 없이 말합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여자가 찬송을 먼저 시작하는 것조차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그것을 겸손하게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 여자가 외딴섬에 있다면, 그들이 사적으로 하는 한, 왜 함께 떡을 떼어서는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그들이 자유롭게 느끼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떡을 떼는 것에 아무런 반대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J. N. Darby, Collected Writings, Expository)

HJR 논평: 그것이 어떤 율법인지는 열린 채로 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가 알았다면 적어도 어떤 율법인지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르침과 교회 일에 끼어들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화를 불러오지 않은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한 무리 앞에 앉아 그들을 가르친다면, 그 여자는 자기 자리를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에 대해 읽습니다. 저마다 섬김 안에서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 온갖 존귀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여자를 설교하라고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도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 그분께 기름을 부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여자들의 예언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영감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빌립의 딸들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여자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식을 전하라고 한 여자를 보내셨다면,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자리가 아닙니다.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소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가정한다면, 가르침은 그 소식 안에 있는 것이지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아예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회심한 사람들을 교사인 양 나서지 않고 이끌어 줄 수는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교리를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HJR 논평: 다비는 예수님이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서 여자들을 자신과 동등한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롬 16:12)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이 선포를 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뜻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기서 언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비는 이 모든 것 위에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디모데전서 2:12라는 이 한 구절을 덮어씌우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지시를 담은 구절이 이 하나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고 게다가 부적절하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한 에베소의 한 특정한 여자에게 해당한다는 점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런 생각은 그의 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는 아예 묻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비와 그의 동시대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더 나아졌습니까? 그들의 시대도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정신은 여자들에게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종속적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선거권도 없었고, 공개 연설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생각에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정신이든, 200년 전의 것이든 오늘날의 것이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그릇되고, 미혹하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설교하라고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교 명령은 예외입니까? 그 밖에는 제 생각에, 열두 제자와 칠십 인을 보내신 일(눅 9:2; 10:1-9)을 제외하면, 예수님이 설교하라고 명하신 일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의 설교를 반대하는 이 논거는 다소 근거 없이 지어낸 것입니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

고린도전서 해석

이 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허락된다면 바로 그곳에서 허락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영적으로 나타내시는 거룩한 분위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은사를, 심지어 예언의 은사까지 가진 거룩한 여자들에게 알맞은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네 딸처럼 말입니다(사도행전 21:9).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영감을 받아 모임에서 이것을 금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금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주님의 지시에 복종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는 여자의 일반적인 복종에 대해 분명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신약도 모임에 관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분명합니다. 여자들이 복음 선포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당시 아무에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조차 충격을 받았을 만큼 여성의 품위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가장 좋은 것의 타락, 혁신의 정신, 그리고 현대 기독교 세계의 길에 맡겨진 몫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들이 질문 하나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

이 주제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이르렀을 뿐인지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통용되던 사도적 질서에서 벗어난 첫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며, 그 말씀은 모든 모임에 똑같이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하여: 그런데 바울은 자기 주제를 조금 더 이어 갑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여자는 조용히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11-12절). 그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그저 행사할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잘못입니다. 여자에게는 그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자가 강하고 남자가 약한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굳이 덧붙여야 할까요?) 다른 모든 관계에도 적용됩니다.¹

HJR 논평: 저는 15살 때부터 켈리의 글을 사랑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그의 무자비하고 근거 없는 가혹함과 오만함이 점점 더 눈에 띄고 거슬리게 된 뒤로, 저는 그의 해석에 대한 신뢰, 혹은 관심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의견과 형제운동/세대주의/은사종지론의 의견을 다른 모든 의견 위에 두는 것은, 윌리엄 켈리처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딱한 일입니다.

이 두 절에 대한 켈리의 글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초기 형제운동의 주류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기 인용한 글에 대해서는, 이 글들이 이미 간접적으로 앞에서 말한 가혹함을 드러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방인들조차 점잖지 못하다고 여겼다면, 1800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시대에는 실제로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20세기에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여자가 일반적으로 복종했다는 그의 전제는 근거 없는 상투적 생각입니다. 그는 그것을 논증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 여자들이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은 타락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형제들 가운데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다비에 대해 말한 것을 되풀이하자면, 그들은 그 시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여성 문제”에서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그들의 주해도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할 일입니다. 그것도 이 형제운동 안에 그토록 많은 복이 있었고 그 운동에서 그토록 많은 복이 흘러나왔는데도 말입니다. 저 자신도 거기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F. W. 그랜트(F. W. Grant)

The Numerical Bible – 4 (34-40절): (타락한) 창조 세계 안의 규칙.

4 이 일반적인 자유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어야 했습니다. 모임에서, 곧 성도들이 실제로 모두 함께 모일 때, 여자들은 잠잠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덕을 세우는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가 처음에 꺼낸 질서의 문제, 곧 창조가 정해 놓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자의 자유의 영역, 그리고 여자의 주권의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영역은 가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갖 종류의 은사를 행사할 넓은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참으로 자기 영역에 속한 것을 더 가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은사의 행사가 얼마나 열매가 많겠으며, 남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여자에게 얼마나 많이 열려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 관해서는 이것이 곧바로 분명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여자가 여전히 가장 좋은, 본성이 정해 준 교육자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의 영역이 자기 가정 안에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 성별 덕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여자는 그곳에서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 수고에 대해 풍성한 유익과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아내들을 통해 다양한 복을 끼칠 무한한 사역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는 살림의 중심이며, 이런 방식으로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은 여자에게 맡겨진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이자 큰 책임입니다. 그것은 다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것을 더 많이 깨닫기만 한다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분명한 이 규칙으로 여자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은사의 사용을 빼앗으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했듯이, 남자들 자신을 보더라도,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공적인 섬김에서 합당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수많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열어 주실 문을 각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찾는 데에는 사랑의 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말은 한편으로는 금지하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언제나 복을 받아 온 참된 영역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다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다시피 특히 오늘날, 그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경향이 있는 이 대목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듯이, 이 장 전체가 대체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장이 이미 그친 특별한 은사들을 다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자리를 전체적으로 어쩌면 한 명의 설교자가 대신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나머지 모든 것을 자기 한 몸에 지니고 있다고 여기고, 교회는 대부분 그에게만 매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는 결코 없었던 편협함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들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랍비주의의 엄격한 규칙과 경직성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여러 연설자를 초청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들이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시에 그만큼 해이함과 여기 있는 사도의 말에 대한 무시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는 짧고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있으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이 그를 깨우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는 그런 깨우침 없이 가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그의 방식대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라.”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은 예나 지금이나 크며, 우리 모두가 섬기도록 책임을 맡은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하고도 실제적인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하라.”²

HJR 논평: 켈리와 다비에 이어 저는 F. W. 그랜트를 읽었습니다. The Numerical Bible은 제 성경 공부의 변함없고 도움이 되는 동반자였습니다. 걸작이며, Logos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도 거기서 인용하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랜트가 이 작품을 쓸 때 아마 지금의 저보다 젊었을 것이므로, 제가 이에 대해 한마디 해도 될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씀은 저 자신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이른바 “좋은” 형제운동 문헌에도 해당됩니다. 34절과 35절을 해석할 때, 그 자신도 이 말씀의 엄격함, 곧 말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란 듯하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외”라고 부릅니다. 아닙니다. 예외라면 – 그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를테면 과부들이 잠잠해야 한다거나, 20살 미만의 여자들이 잠잠해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이라면 예외입니다. 그러나 여성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 문맥 안에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들이 그 밖에도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들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자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의 뉴욕에서 꼭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자의 공간이 가정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의 생각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1세기의 시대정신에도, 20세기까지 이어진 시대정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 사회 질서입니다. 그 사회 질서는 지난 50년 동안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가정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해도 되고, 좋은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라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언젠가는 아예 집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자의 잠잠함을 가사 노동에 대한 이런 생각과 연결하는 것, 말하자면 침묵을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어쩌면 10년 전까지는 저를 설득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도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처럼 창조 질서를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이 질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지니고, 대등한 눈높이에서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셨고 타락과 함께 비로소 들어온,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복종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남자는 자기 삶을 위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예배 모임에서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들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곳에서 여자들의 입을 막는 창조 질서 이해는 상당히 일방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그분이 사시던 때에는 아직 그런 형태의 교회 모임이 없었다 해도, 이 점도 이 문맥에서 언급되어야 합니다.

F. B. 홀(F. B. Hole)

34절과 35절은 모임에서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다룹니다. 이 지시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하다”로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이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수다를 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대정신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된다면, 머지않아 성경에서 여전히 지켜지는 것은 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 지시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공격받을지 미리 아셨습니다. 이런 경향은 고린도의 몇몇 사람에게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36절과 37절이 그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과 그분의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지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 영적이었다면, 바울이 세운 질서의 원칙들이 바로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전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통찰을 시험하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유의하십시오. 그 말씀은 교회에 이르는 것입니다.³

HJR 논평: 바울이 이것을 주의 명령이라고 부른다면, 왜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까? 주님 자신에게서도? 사도들에게서도? 단순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기에는 한 구절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매우 경건하게 들립니다. 저는 형제들에게서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는 것을 배웠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본문을 확증해 주는 비교 본문이 없습니다.

여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상투적인 비관론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W. W. 페레데이(W. W. Fereday)

Bible Treasury(성경 보고), 제20권, 378쪽, 질문에 대한 답변.

모임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34-35를 오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장 전체는 성도들이 모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유일한 규칙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려면 성령의 이끄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주님께 유익이 되거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외가 나옵니다. “너희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등.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남자들은(여기에는 정관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각처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등.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은 온전히 조용한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며 배우라. 그러나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남자의 권위를 가로채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있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처럼 모임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의 큰 목적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이 구절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Authorized Version[킹 제임스 성경]이 추론하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는 지시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지도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1)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여자에게 정해 주신 자리.

(2) 타락에서 여자가 한 역할.

(1)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그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3이 말하듯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결코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두 번째 자리를 주셨으므로, 결코 첫 번째 자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여자에게 마땅합니다.

(2)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사탄은 더 연약한 그릇을 통해 죄를 들여왔습니다(그렇다고 아담의 타락이 더 낫거나 더 용서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는 속지 않았으므로 눈을 뜬 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지도하는 자리에서 배제하십니다.

여자의 복종 혹은 침묵의 또 다른 이유가 고린도전서 14:36에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제 이 말씀을 잘 저울질해 보고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여자)에게 오는 것이지,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듯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여자는 이 큰 원칙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배워야 하며, 남자의 교사가 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어디에서도 여자가 설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설명됩니다. 동방의 여자는(그리고 성경이 처음에 동방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외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 몸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모임에서는, 여자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지시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몇몇 사람이 마음을 쓰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매들이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저는 그런 모임이, 어느 때에 주의 식탁으로부터 특별히 소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의 모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거기에 참여해도 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일반인에게 문이 열려 있는 모임에서 그들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가 공적으로 나서는 것을 허락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모임이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의 모임은 아니지만, 저는 그 원칙들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행동에서(심지어 옷차림에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오늘날 같은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고 나서는 사람들, 많은 경우 자신에게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 시대정신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정신에 물드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는 하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에 고린도전서 11장의 지시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단,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를 가리고 한다는 조건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공적인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같은 편지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경외심을 가진 성경 독자라면 누구도 성경이 스스로 모순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적인 성격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오늘날보다 더, 신자들이 기도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개인 집이나 다른 곳에서 격식 없이 자주 모였습니다. 제 생각에 고린도전서 11장의 권면은 본래 의미의 교회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성격도 없는 그런 모임과 관련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최근에 몇몇 사람이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하게 썼으며, 계시된 대로 주님의 뜻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누구를 택하시든 그에게서 바로잡음을 받는다면 감사하겠습니다. W. W. F.

HJR 논평: 침묵이라는 주제에 관한 이 질문 답변에서도, 오늘날 자주 그러듯이 온갖 논거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4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디모데전서 2장과 뒤섞입니다. 뒤의 본문도 모임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처에서”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대신 서로 마주쳐 다루는 장소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모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들도 각처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주목을 끌려고 화려하게 옷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배우는 것이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모임이 아니라 집에서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은 여자는 물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권위를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본문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의미하는 것은 남용하고, 해를 끼치고, 강요하는 가르침의 태도이며, 편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거짓 가르침의 전파입니다.

지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혹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그는 여자들이 지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다는 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순서는 결코 지도해서는 안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것은 은사입니다. 어떤 남자가 지도를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여자가 분명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머리이고 그 반대가 아니므로 남자가 지도자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렇게 논증될 수 없는 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머리는 오히려 기원과 근원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머리는 공급자이자 구원자이지, 권위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앞장서고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형과 성격과 은사에 따라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로서의 일방적인 복종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믿는 동화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살지 않고, 실제로는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밖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유지할 때조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여자가 속았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여자도 지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편지 전체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남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자가 더 쉽게 미혹되므로 지도해서는 안 됩니까? 물론 쉽게 미혹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들은 지도자이거나 지도자가 되려 한다는 점으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지도권을 잡았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열매 하나를 건네주는 것이 지도 행위입니까? 그리고 이 이른바 지도 행위에서 지도와 가르침의 금지를 끌어낸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세상의 모든 여자에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논증에는 적어도 성경의 평행 구절 하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턴 스미스(Hamilton Smith)

(34, 35절) 모임에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는 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들이 잠잠한 것은 창조 질서에도, 율법에도 부합합니다. 여자의 자유의 영역은 가정에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를 뒤집어쓰는 것을 뜻합니다.

HJR 논평: 저는 스미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문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제가 위에서 여러 번 다루고 문제를 제기한 모든 것을 짧게 한데 모아 놓는 데 성공합니다.

윌리엄 맥도널드(William MacDonald)

14: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 어떤 모임이 견장을 수 없는 혼란이라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4:34 신약의 절 구분과 심지어 구두점도 원본이 기록되고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붙여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3절의 마지막 부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로 보기보다, 34절을 더 자세히 규정하는 말로 볼 때 더 뜻이 잘 통합니다(몇몇 헬라어 원문 판과 여러 독일어 성경판이 이런 구두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너희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는 지시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가르침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신약은 여러 곳에서, 여자들이 귀중한 섬김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지역 교회 전체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증언합니다. 여자들에게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지위는 남자에 대한 복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우리는 덧붙인 표현("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이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종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 복종은 율법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쳐지며, 여기서 율법은 아마 본질적으로 모세오경을 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16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여자들이 예배 중에 서로 수다를 떨며 최신 소문을 주고받는 것을 금한다고 흔히들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지지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로 번역된 단어 (laleo)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수다를 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같은 장 21절과 히브리서 1:1에서 하나님에 대해 쓰입니다.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HJR: ??)

14:35 여자들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어떤 여자들은 질문을 함으로써 앞의 금지를 피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빠져나갈 구멍도 막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혼 여자나 과부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개별 사례를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만 세웁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자기 아버지나 형제, 혹은 교회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에서 자기 집안 남자들에게 물으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새겨 두어야 할 기본 규칙은 이것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4:36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가르침이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얼마나 옳았습니까! 그런 반론에 맞서기 위해 그는 36절에서 방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다시 말해, 고린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사도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려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교회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지, 아니면 그들만이 그 말씀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 태도를 통해 이 문제에서 스스로를 권위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았고, 어떤 교회도 그 말씀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4:37 앞의 모든 지시와 관련하여 사도는 여기서, 그것들이 자기 생각이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이거나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특히 여자들에 관한 지시)가 그 자신의 편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이 지시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⁴

안드레아스 슈타인마이스터(Andreas Steinmeister)

인용 출처: "Das Schweigen der Frauen. Eine Studie über 1. Korinther 14,34",
www.soundwords.de

6. 고린도전서 14:26에서는 "형제들"을 부르고, 34절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고전 14:34)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형제자매들"을 뜻한다면, 그것은 34절과 모순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26절에서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그 일들을 하라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34절에서는 여자들이 모임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2:12에서는 여자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고린도전서 11:6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거기서는 여자가 머리를 자르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여자에게 이 뒤의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자들이 모임에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 것이 무슨 놀랄 일이겠습니까? 어떤 여자들에게는 사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할 때, 그리고 함께 모일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어떤 문화나 어떤 형제자매들 때문이 아니라)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정리해 버렸다면, 고린도전서 14:34의 "잠잠하라"라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고 따라서 영적인 힘도 더 이상 없다고 해도 물론 놀랄 일이 아닙니다.

HJR 논평: 안드레아스는 너무 일찍, 그리고 갑자기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반론을 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잘 알려졌던 바로 그 열정으로 말입니다.

페터 슈트라이텐베르거(Peter Streitenberger)

헬라어 다수 본문	독일어 번역 (여기서는 한국어로 옮김)	해설
14:34 Αἱ γυναῖκες ὑμῶν ἐν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 σιγάτωσαν· οὐ γὰρ ἐπιτέτραπται αὐταῖς λαλεῖν, ἀλλ' ὑποτάσσεσθαι, καθὼς καὶ ὁ νόμος λέγει.	너희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해야 한다.	λαλέω("말하다")는 "이르다(say)"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안녕하세요"나 "아멘"을 말해도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임에서 무언가를 기여한다는 의미의 말하기입니다. 혹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하듯이, 가르침, 기도, 해석, 찬송 제안, 예언(혹은 35절에 따르면 질문하기)과 같이 방향을 정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형제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사 ὑποτάσσεσθαι("그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14:35 Εἰ δέ τι μαθεῖν θέλουσιν, ἐν οἴκῳ τοῦς ἰδίους ἄνδρας ἐπερωτᾶτωσαν·	그러나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모임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ἐν οἴκῳ("집에서, 가정에서")는 앞쪽에 놓여 있으며, 위의 "모임에서"와 대조를 이룹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말하지 말고 잠잠해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부끄러운 일, 곧 어울리지 않는

헬라어 다수 본문	독일어 번역 (여기서는 한국어로 옮김)	해설
αἰσχρὸν γάρ ἐστιν γυναιξὶν ἐν ἐκκλησίᾳ λαλεῖν.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일이라는 데서 찾습니다. 창조 질서가 남자를 머리로 정했고, 권위는 그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참조).
14:36 Ἡ ἀφ' ὑμῶν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ἐξηλθεν; Ἡ εἰς ὑμᾶς μόνους κατήντησεν;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바울은 모든 모임에서 여자들이 잠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고린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나 받았느냐는 수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임도 다른 모임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편지 전체 링크: (1) Der erste Korintherbrief Text und Übersetzung mit Kommentar | Peter Streitenberger - Academia.edu

HJR 논평: 페터는 이 문제에서 잘 알려진 형제운동의 가르침을 대변하면서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많은데도 말입니다. 고대 헬라어를 잘 알거나 아주 잘 안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과 사본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 두 절이 서방 사본들에서는 33절 뒤가 아니라 장의 끝에 나온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은 이 절들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르노 호하게(Arno Hohage)(자유 형제단)

다음 두 저자는 아래 책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Frau sein, Mann sein in der Gemeinde, Brennpunkt Frauenfrage, 2012

c. 왜 잠잠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먼저 창조 질서가 적용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고전 14:34). 이것은 아내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 해당합니다. 본문은 "너희 여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본에 나오는 소유 형용사 "너희"는 원래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Textus Receptus가 따른 첨가로 보아야 합니다(참조: Metzger, 500쪽). 여기서 전제되는 창조 질서는 가정을 넘어서며,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그 밖에도 여자의 침묵 명령에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이유들은 힘주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1.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전 14:34). 수동태는 주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더 높은 권위도, 특히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2.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불명예, 수치, 비난받을 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 여자가 말하는 것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판단은 가혹하고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14장과 모순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일관성 없이 생각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학식 있는 랍비가 몇 쪽 안 되는 사이에 버젓이 자기 말을 뒤집는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한다는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은 저자의 권위(14:37)는 두 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두 장은 모순 없는 뜻을 이룹니다. 사실 옛 주석들(예를 들어 찬[Zahn], 하지[Hodge])이 이미 해결책을 보여 주었습니다. 곧 11장에서는 사적인 자리의 여자를, 14장에서는 교회 안의 여자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편의상의 이유로 이 견해를 버렸고, 그래서 이제 주해로 풀어야 할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흔히 사태에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17에 가서야 비로소 교회의 모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도, 때때로 이 장의 첫 부분도 거기에 속하는 것처럼 다룹니다. 16절에 이미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다만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므로 교회의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HJR 논평: 자유 형제단 쪽에서 자매들이 갑자기 참여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폐쇄 형제단과 똑같이 힘주어 절대적 침묵 명령을 주장합니다.

호하게는 이 지시의 근거를 창조 질서에서 찾지만, 성별의 차이 외에 그 질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제된 창조 질서는 창조 세계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해 아래의 다른 자리들에는 이와 비슷한 지시가 없습니까? 성별의 차이 자체는 아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논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곧 성별의 차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주시려는 풍성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호하게에게는 여자의 참여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약 전체를 배경으로 보면 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자매가 눈에 띄게 겸손한 태도로, 소박한 말로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소리 내어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수치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침묵 명령이, 그리고 그와 함께 모임에서의 기도 금지가 있다면, 이 명령을 한 번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수치는 아닙니다.

울리히 플레치(Ulrich Pletsch)(자유 형제단)

고린도전서 11:5와 14:34-35 사이의 이른바 긴장에 대하여

바울의 이 진술들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 그는 분명히 말하는 것과 복종 사이에 대립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으로 복종의 명령이 침해된다고 봅니다.
2. 분명히 여자에게는 교회에서 질문하거나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3. 바울은 여기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해야 하는지 잠잠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 분명히 여러 가지를 진술합니다.
4. 바울은 여기서 자기 진술이 교회의 예배와 관련된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남기지 않습니다.
5. 바울은 여기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한 것과 말하는 것에 관해 세 가지 명령과 하나의 금지를 표현합니다.
6. 형식적인 측면(명령, 금지, 단어 선택)만 보아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한 교리적 진술을 표현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특히 내용상의 진술들은, 이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잠잠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에 관한 교리적 진술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찰, 결론, 그리고 추가 질문 관찰 1. 여자가 교회에서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잠잠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에 관한 교리적 진술은 오직 고린도전서 14장에만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없습니다.

2.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교회에서 하는지 아닌지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본문 사이의 긴장의 원인이자 핵심입니다!) 3.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잠잠할 것을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금지나 명령을 약하게 하거나 심지어 무효로 만드는 진술이 없습니다.

결론

1.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무엇에 유의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그의 주제가 아닙니다.
2. 우리 교회 집회에서 여자들의 참여에 관한 우리 질문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오직 고린도전서 14장에만 있습니다.
3. 우리 교회 집회에서 여자들의 참여에 관한 우리 질문과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이 분명히 더 명확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부터 설명해야 하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4. 고린도전서 14장을 우선시하는 모든 입장은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질문에 관한 진술의 측면에서 두 성경 구절의 비중을 따지려면, 고린도전서 11장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부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 질문에 대해 분명히 더 명확하고 더 무게 있는 진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실천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어떤 보조 이론에 기대야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두 성경 구절의 진술을 본문 비교에 근거하여 저울질하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선이해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추가 질문

1. 고린도전서 14:34-35의 침묵 명령 혹은 발언 금지는 장 전체의 문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서 먼저 확인해 둘 것은, “조건부 침묵”이라는 접근은 고린도전서 14장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이 이 질문에 대해 더 명확하고 더 무게 있는 진술을 하므로, 이 접근은 선이해의 산물이거나, 본래의 본문 진술 위에 놓인 보조 이론입니다.

2. 고린도전서 14장의 침묵 명령 혹은 발언 금지는 고린도전서 11장의 기도나 예언을 포함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 더 무게 있는 구절이라면 – 그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한 한, 침묵 명령 혹은 발언 금지는 고린도전서 11장의 기도나 예언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침묵 명령 혹은 발언 금지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 4. 침묵 명령과 발언 금지를 절대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조 이론에 기대지 않고 성경 본문의 도움으로 다음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11장이 고린도전서 14장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교회 집회라는 맥락을 다룬다는 것,
- 고린도전서 11장이 고린도전서 14장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해도 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 교리적 진술을 한다는 것,
- 고린도전서 11장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대단히 분명한 지시를 상대화한다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 고린도전서 14:34-35와 고린도전서 14:29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 곧 침묵 명령과 발언 금지가 예언의 말을 분별하는 일과 관련된다는 것,
- 여자의 침묵이 28절과 3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침묵”이라는 것,
- 예언의 말을 분별하는 일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논평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교회 전체가 예언의 말을 분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

-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질문도 예언의 말을 분별하는 일과 관련된다는 것, 그리고 순전히 이해를 위한 질문이 어떻게 예언의 말에 대한 분별로 여겨질 수 있는지.
5. 고린도전서 11:5의 진술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비추어 해석한다고 해서 그 뜻이 상대화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해석에서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진술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진술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6.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고린도전서 14:34-35의 진술은 그 뜻이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 마무리 요약

1. 서로 다른 선이해의 영향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기 위해 두 성경 구절의 진술을 비교하는 데서 출발하면, 고린도전서 14:34-35가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 혹은 잠잠한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교리적 진술을 하는 본문이라는 결과에 어쩔 수 없이 이르게 됩니다.
2. 본문 비교에 근거하여, 고린도전서 11장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여자의 섬김에 관한 질문을 밝히는 일은 고린도전서 14장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3. 고린도전서 14장의 해석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지시를 보여 줍니다. 침묵 명령과 발언 금지는 교회 전체 앞에서 한 개인이 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포함합니다.

울리히 플레치는 1956년생으로, 결혼하여 딸 하나와 손주 둘을 두었고, 기독교 초등학교의 교장이며 한 형제단 교회의 공동 장로입니다.

HJR 논평: 플레치의 글은 제가 아는 독일어권의 절대적 침묵 명령 논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많은 논거를 들어 침묵 명령을 옹호합니다. 두 본문 사이의 긴장은 – 저라면 그것을 모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이렇게 해소됩니다. 편지에서 뒤에 나오는 본문이 해석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더 큰 명확성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본문만 있다면 이 논증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더 큰 명확성은 14장의 나머지를 완전히 제쳐 놓을 때에만 생겨납니다. 그리고 – 제가 전제하는 바로는 – 자매들이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것을 말없이 전제할 수밖에 없는 신약의 다른 모든 본문도 제쳐 놓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교부들

찰스 J. 엘리콧(Charles J. Ellicott)

C. J. 엘리콧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34절. αἱ γυναῖκες κ.τ.λ.]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곧 이 장이 오로지 다루고 있는, 교회의 더 큰 공적인 모임에서입니다. 4, 5, 12, 16, 19, 23, 26절을 참조하고, 11:5에 대한 주를 보십시오. 사도는 여기서 특히 공적인 가르치는 직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12, διδάσκειν δὲ γυναῖκί οὐκ ἐπιτρέπω를 참조하십시오. 이 규칙은 초대 교회에서 세심하게 지켜졌습니다. Const. Apost. III. 6, 그리고 Conc. Carthag. IV. 99를 보십시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공적으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회당의 수치를 뜻했습니다. Lightfoot, Hor. in h. l., Schoettg. Hor. p. 658을 보십시오.

사도 헌장(제3권)

여자들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는가에 대하여.

VI. 우리는 우리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고린도전서 14:34). 다만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만 허락합니다. 우리의 선생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과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 열들을 보내실 때, 여자들을 설교하라고 보내신 적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그런 여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누이들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살로메와 그 밖의 몇몇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분이 친히 먼저 여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백성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고린도전서 11:3), 몸의 나머지가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슈트라크(Strack)와 빌러벡(Billerbeck)

14, 34 A: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하라.

옛 회당은 예배 모임에서 여자들이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금했습니다. 여자들은 듣기 위해, 그리고 타르굼 낭독에서 계명을 배우기 위해 예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⁵

14, 34 B: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복종해야 한다.

사도는 이 말을 할 때 아마 창세기 3:16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νόμος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인 관습도 토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RH 19a를 참조하십시오. "전승의 말은 토라의 말과 같다."

14, 35 A: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확신은 아마, 아버지에게는 적어도 자기 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할 의무가 없다는 쪽이었을 것입니다.

14, 35 B: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슈무엘(Schemuël, † 254)의 말을 참조하십시오. "여자에게 있는 목소리는 수치스러운 것(음란한 것)이다" קול באשה ערוה. Berakh 24a, 마태복음 5:28 항목, 299쪽을 보십시오.⁶

개신교 세계의 해석과 설명

캐서린 C. 부시넬(Katharine C. Bushnell)

캐서린 C. 부시넬: Wach auf, Eva!(『깨어나라, 하와여!』)(초판 1908년, 독일어판 2020년)

여자의 완전한 평등이라는, 하나님의 본래적이며 변함없는 뜻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단락별 발췌

더욱이 그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금했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바로 이 말 외에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금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에서, 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각주에 제시되는 "율법"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창세기 3:16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맞지 않습니다. (1) 창세기 3:16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뜻이라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라고 명할 경우 아내들은 말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창세기 3:16의 이런 독법을 아는 사람은, 있다 해도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칠십인역을 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거의 전적으로 이 번역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대한 그의 열일곱 번의 언급 가운데 히브리어 본문을 분명히 인용하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너는 네 남편에게로 돌아서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음으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바울의 이 단 하나의 말이 여자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성경의 "율법"으로 세워져야 한다면, 여자들에게 입을 열라고 명하는 구약의 수많은 다른 "율법"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시편에서만 백 번가량 되풀이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같은 말씀들 말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권면과 요구가 오직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그야말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해되지도, 가르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백 개나 이백 개의 성경 진술을 (한 문장을 다른 문장들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도 전혀 없이) 의문에 부치는, 성경의 한 문장에 대한 그런 해석을 향한 어떤 종교 교사들의 이 지나친 열심은, 그들의 해석을 너무 서둘러 받아들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한 문장을 문자 그대로 보편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곳(고린도전서 7:8, 34-35)에서는 왜 바울의 권위를 문자 그대로 보편적으로 적용하자고 똑같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바로 그 사람들이 결혼과 가사가 여자들의 하나뿐인 유일한 소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들은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하박국 2:20)라는 문장이 여자들의 입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입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성경 안이 아니라 성경 밖의 규칙을 가리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침묵의 규칙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독일의 위대한 사전 편찬자

슐로이스너(Schleusner)는 그의 헬라어-라틴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구전 전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 혹은 유대 전통들 ... 구약에는 이 문제에 관한 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트링가(Vitranga)를 인용하여 “여자들이 회당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논쟁적인 문제에서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율법”이라고 부를 리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 혹은 전승에 맞서 싸우는 데 자기 힘의 상당 부분을 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디도서 1:14)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므로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가 구약과 달리 여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회중을 존중하는 뜻에서 여자는 스스로 율법을 읽어서는 안 된다.” “여자가 남자들 가운데서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수치다.” “여자의 목소리는 더러운 벌거벗음이다.” 이것들은 탈무드의 많은 격언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질문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유한 유대 여자가 위대한 랍비 엘리에제르(R. Eliezer)에게 감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송아지의 죄는 하나뿐이었는데, 왜 세 가지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그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섰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기 물레 너머의 일에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 히르카누스(Hyrkanus)라는 사람이 랍비 엘레아자르(R. Eleazer)에게 따로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그렇게 꾸지람을 들은 부인이 보복으로 자기 십일조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액수가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넘기느니 차라리 불태워 버리라.” 이 문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후대를 위한 일종의 율법 격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저는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썼을 때 자기 견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말이며, 그 말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그리고 장 끝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로 대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 램지(Ramsay) 교수의 지침 세 가지를 적용해 봅시다. (1) “바울이 그들의 지식을 넘지시 가리킬 때마다.” – 바울은 37절에서 그들의 지식을 넘지시 가리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도 하나님께 알려지지 못할 것이다.” (2) “어떤 진술이 바로 앞뒤의 문맥과 뚜렷이 대립할 때.” – 34, 35절은 31절과 39절과 뚜렷이 대조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을 남성에게만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지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어떤 진술이 바울의 알려진 견해와 뚜렷이 대립할 때.” – 사도가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명한다면, 그것은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관한 11장의 설명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과 정면으로 대립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이 모든 트집과, 유대인들의 구전 전승을 인용하여 자기 논거를 뒷받침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그런 다음 그는 37-40절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 곧 성령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그 밖의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는 여기서 “주의 명령”을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이 가르친 “사람의 명령”과 대비시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참된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규정은 성경에 맞았고 유대 랍비들의 규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

34-35절

여기서 사도는 1. 공적인 모임에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는 자기 배움을 위한 질문조차 해서는 안 되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온전히 조용한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내가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디모데전서 2:11-12). 실제로 (11:5에) 여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모임에서 기도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보이는 암시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 단락에서 그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하는 방식, 곧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와 그 나라에서 성별의 구분을 없애고 여자들을 남자들과 같은 위치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여자들이 공적으로 나서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들에게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34절). 기도할 때도, 예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문맥은 분명히 뒤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 장에서 이해되는 제한된 의미에서, 곧 영감에 의한 설교나 성경 해석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가 이런 의미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 될 것인데, 그것은 여자의 복종의 상태에 그다지 잘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점에서 그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되는데, 그런 우월함은 여자에게 남자에 대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나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영감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영적 은사를 가진 여자들이 있었고(사도행전 21:9 참조), 모임에서 그런 감동 아래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억눌러야 합니까? 아니면 공적으로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 왜 그들이 이 은사를 가져야 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금지는 보통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여자들이 하나님의 감동 아래 있고 그것이 알려진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말할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들은 가르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토론하거나 질문해서도 안 되며, 거기서는 잠잠히 배우고, 어려움이 생기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유의하십시오. 복종 가운데 배우는 것이 아내의 의무이듯이, 아내를 가르칠 수 있음으로써 자기의 우월함을 지키는 것은 남편의 의무입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묻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면, 적어도 아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남편의 관심사이자 의무입니다. 아내가 잠잠해야 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내에게 수치라면, 남편이 말해야 할 때 잠잠하고, 아내가 집에서 물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에게 수치입니다. 2. 여기서 우리는 이 명령의 이유를 봅니다. 여자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자 명령입니다(34절). 여자들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자리를 바꾸려는 월권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수치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와 그 민족 가운데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뜻으로 보였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곧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수치라고 결론짓습니다. 부끄러움이란 무언가 단정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쾌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기 위치를 버리고, 자기 성별의 복종을 포기하거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단정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의 신분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구별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 아래 두신 이들은 자기를 그들과 같은 위치에 두거나 우월함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으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며, 교사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남자에 대한 우월함을 내세우는 월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⁷

HJR 논평: 가르치는 것이 우월함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상한 말이며,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논거를 동원하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워렌 W. 위어스비(Warren W. Wiersbe)

둘째로, 여자들은 모임에서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고전 14:34-35). 바울은 이미 여자들에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고린도전서 11:5). 그러므로 이 지시는 예언의 메시지를 평가하는 바로 앞뒤의 문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교리의 순수성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자들, 특히 장로들의 어깨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딤후 2:11-12).

이 금지의 문맥은, 모임에서 몇몇 여자가 질문을 하고 어쩌면 다툼까지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여자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질문은 집에서 대답을 듣도록 하라고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장로들이나 자기 가족의 다른 남자들과 상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웠기 때문에 남편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쪽이 아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34에서 어떤 “율법”을 가리켰습니까? 아마 창세기 3:16일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특히 처음 다섯 권의 책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논의했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레데릭 고데(Frédéric Godet)

사도는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회중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행위로 봅니다(딤후 2:12 참조). 그리고 남자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태도는 순종의 태도와 대립하므로 [...], 그는 여자가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위치와 모순된다고 결론짓습니다. ... 예배에서 여자들이 잠잠한 것은, 남자와 관련하여 여자들에게 지워진 복종이라는 일반적인 조건의 한 표현 형태일 뿐입니다. ... 바울은 여자가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본성과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 여자에게 정해진 태도를 거스르는 행동으로 봅니다(11:1-16 참조). ... 여자들은 각자를 자기 남편과 하나로 묶어 주는 의존의 끈을 해치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어 번역: 토마스 예텔[Thomas Jettel].)

아돌프 슬라터(Adolf Schlatter)

14:34-35: 여자들은 교회의 모임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크고 확신에 찬 자유를 특징으로 삼았고, 그 자유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힘이 모임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 자유 가운데서, 이 자유가 남자에게와 똑같이 여자에게도 적용되느냐 하는 질문도 생겨났습니다. 다른 많은 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교회는 먼저 자기 길을 찾아야 했고, 무엇이 자기들 가운데서 관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11장에서 기도할 때 여자의 태도에 대해 말한 것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가 두 성의 동등한 지위에 반대한다는 것을 압니다. 본성이 두 성 사이에 세워 놓은 경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침해되지 않고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임에서 여자에게 발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아직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모임에서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모임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며, 여자도 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여자도 예언의 소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공적인 연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1장에서, 여자는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처럼 가장 높은 영적 능력 안에서도 여자로서 처신해야 하며, 그래서 결코 자신을 남자와 같게 만들거나 남자와의 결속을 벗어 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므로, 우리는 그가 여자가 모임에서 남자들 앞에서, 그리고 남자들을 대신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이유도 쉽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여자는 자기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자의 갈망에 바울은 기꺼이 모든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깊이 깨닫게 되는 데에는, 모임에서 공적으로 질문하거나 연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는 알고 싶은 것을 자기 남편과 의논해야 합니다. 남편은 여자의 내적인 삶의 모든 관심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도, 여자를 도와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14:36: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여자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지 않고, 각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하나 됨을 지키며,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을 세우는 데 함께 돕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은 첫 번째 교회이거나 유일한 교회라면, 다른 교회들을 고려하기를 거절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첫 번째 교회도 유일한 교회도 아니므로, 다른 교회들이 옳고 합당하다고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도 적용됩니다.⁸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십중팔구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의 해이한 도덕 상태를 염두에 두었고, 젊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풍기 문란의 혐의를 받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 내어 교회의 일반적인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매우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말을 이어 갑니다. 그는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 해도 권위에 맞서 반항할 권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기가 준 조언과 자기가 세운 규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자기의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온 모리스(Leon Morris)

Morris, L., 1 Corinthi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II,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34-35.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4:17 참조)가 이 구절에 속한다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공인된 그리스도인의 관행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맡았다면, 기독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는 덕스러운 여자는 “겸손해야 하며, 바깥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조언』, 31). 또한 “여자는 자기 남편과 함께 말하거나 남편을 통해 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같은 책, 32). 바울은 그들에게 관습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합니다. 그는 율법을 가리키며 그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그는 “자기 남편에게”라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위입니다. 엡 5:21 참조). 대부분은 그가 창세기 3:16을 생각한다고 봅니다(그가 창 1:26 이하와 2:21 이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인정했으므로(11:5), 여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규칙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행 2:18-19; 21:9 참조). 모팻(Moffatt)은 바울이 “경건한 여자가 공적인 예배에서조차, 초대 교회의 그토록 많은 여자가 가지고 있던 예언의 은사를 행사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았다”라는 견해를 가집니다. 그는 이 금지가 “예배 중에 선지자나 교사가 말한 것에 대한 토론이나 해석에 참여하는 여자들”과 관련된다고 이해합니다(그루덴[Grudem], 249-251쪽은 본질적으로 동의하며, 스릴[Thrall]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링(Héring)은 “설교하는 여자와 ... 교회의 평범한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해 있을 뿐인 여자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발견합니다. G. 델링(G. Delling)은 여기서 “제멋대로 말하는 것을 막는 것”을 봅니다(TDNT, viii, 43쪽). 칼뱅은 바울의 말을,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는 있지만 정규 예배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1세기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을 죄로 여겼고, 다른 곳의 사정도 별로 낫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의 여자들은, 다른 이유가 없다 해도 그들이 의미 있는 말을 거의 혹은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도, 교회에서 잠잠해야 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자유롭게 배운다는 것을 전제했다는 점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만큼 자주 주목받지 못합니다(눅 10:39-42 참조). 여기서 바울이 관심을 두는 것은 여자들이 배워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여자들이 질문을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해야 하며 모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품위를 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11:6과 같은 단어). 볼트만(Bultmann)은 이 말을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부끄러운 것”으로 이해합니다(TDNT, i, 190쪽).

36. 이것은 이런 관행이 실제로 고린도에서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 한탄할 기회가 한 번 이상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독교의 일들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해로만 정당화되는 새로운 길을 가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태도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기원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이르렀을 뿐인지 반어적으로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모든 교회”의 관습과 생각에 유의해야 합니다 (33절).⁹

벤 위더링턴 3세(Ben Witherington III)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예언을 분별하는 동안 몇몇 여자, 아마 결혼한 여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스스로 여선지자였고, 그래서 말해진 것을 분별할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을, 어쩌면 부적절한 질문을 했고, 예배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34-3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이교의 예언에 대해 논의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여자들은 그리스도인 선지자나 여선지자들이 델포이의 신탁과 비슷하게 기능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델포이의 신탁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질문을 받을 때에만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예언은 다르다고 논증합니다. 선지자와 여선지자들은 사람이 일을 부추기거나 자극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에 응답하여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런 질문을 다른 장소, 곧 가정으로 제한합니다. 어쩌면 그는 물어보아야 할 남편이나 남자가 선지자였거나, 적어도 그런 질문에 더 적절한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키너(Keener)가 여기서 교육의 문제가 다루어진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옳을지도 모릅니다. 질문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배울 권리를 확인하지만, 다른 맥락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바울은 특권의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지, 그가 이미 11장에서 허락한, 모임에서 말할 여자의 권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크레이그 L. 블롬버그(Craig L. Blomberg)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From Biblical Text ... to Contemporary Life

11:2-16에서처럼, 바울이 잠잠하게 하는 여자들은 아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교회의 예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되고, 집에서 “자기 남편”과 상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35절. NIV에서처럼 분명히 남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에 대한 복종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남편에게 도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34절). “율법”은 여자들에게 공적인 예배에서 잠잠하라고 규정하는 구약의 특정한 구절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 창세기 3:16을 가리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어디에서도 타락의 결과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던지시 가리킬 것입니다. 11:8-9에서 여자들이 자기 머리에 표하는 존경과 관련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이 E. 치암파(Roy E. Ciampa)와 브라이언 S. 로즈너(Brian S. Rosner)(수록: G. K. 비일 [G. K. Beale] / D. A. 카슨[D. A. Carson] [편])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신약 사용에 관한 주석

14:33-35 바울은 여자들(혹은 아내들)이 교회 모임 동안 잠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율법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해야 합니다(본문의 문제에 대해서는 Niccum 1997; Thiselton 2000: 1148-50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자들이 전혀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수 없습니다. 11장에서 그는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여자들의 권한을 논의하기 때문입니다(침묵의 성격이 문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Grudem 1982: 242-44를 보십시오). 아마 그는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예언 메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나(Grudem 1982; Carson 1987: 129 [14:29 참조]가 그렇게 봅니다. 혹은 특히 자기 남편들이 말한 메시지를 뜻할까요? [14:35 참조]), 아니면 방해가 되는 잡담이나 부적절한 대화를 삼가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Paige 2002가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특히 다른 남자와의 대화를 뜻할 것입니다(14:35 참조: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tous idious andras]”).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아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질서와 품위에 대한 함의를 지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Thiselton 2000: 1153-54; Bruce 1980: 136; Carson 1987: 129; Keener 1992: 86-87 참조. 또한 위의 고린도전서 11:2-16에 대한 주석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창세기 3:16과,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여자에게 하신 그곳의 말씀을 던지시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4Q416 2 IV, 1-8 참조). 그러나 이 본문은 타락의 저주에서 비롯된 다스림에 관한 것입니다(그러나 출처는 창세기 2:18-23과 결합된 창세기 3:16이라고 보는 Grudem [1982: 253-54]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 본문이 여자들에게 (그 당시와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는, 남자들에 대한 가르치는 권위”를 얻는 것을 금한다고 이해합니다(예: Carson 1987: 130). 다른 이들은 바울이 이 말로, 성경은 예배의 자리에서 존중과 질서(여기서는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중)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친다고

말하려는 것이며, 그러나 이 원칙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바울의 세계와 뚜렷이 다른 문화에서는 아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¹⁰

앤서니 C. 티슬턴(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3b-34 번역에 대한 판단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고린도의 독자들이 $\sigmaιγάτωσαν$ (그들은 잠잠해야 한다, 그들은 조용해야 한다, 그들은 말을 멈추어야 한다, 그들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과 $λαλεῖν$ (말하다, 방금 묘사한 방식으로 말하다,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말하다) 같은 말을 저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알려져 있던 상황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하리라는 바울의 전제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어휘 선택에만 근거한 "추상화된" 번역은 실제로 문맥에 따른 이해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34-35절은 바울이 인용한 다음 물리치는 고린도의 구호나 고린도 신학의 한 조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는 억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6:12; 7:1; 10:23에서, 그리고 어쩌면 다른 곳에서도(예를 들어 8:1-6) 바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부하는 고린도의 견해를 인용하는가?

이 견해와 가장 많이 연결되는 사람은 아마 D. W. 오델스콧(D. W. Odell-Scott)일 것입니다. 1983년의 한 논문에서, 그리고 1987년 제롬 머피오코너(Jerome Murphy-O'Connor)에게 보낸 또 다른 답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누스(Manus), 플래너건(Flanagan)과 스나이더(Snyder), 그리고 엘리슨(Allison)도 이 견해의 변형을 제시합니다(아래 참조). 오델스콧은 36절 첫머리의 핵심 불변화사 ἢ("아니면")에서, 고린도의 한 무리가 34-35절의 말로 표현한 보수적인 가부장적 지배에 대한 결정적인 수사적 반박을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36절). 오델스콧에 따르면 이것은 34-35절에 대한 강한 반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본문은 공적인 모임에서 말할 여자들의 권한을 힘주어 지지합니다.

(d) 우리는 위더링턴(Witherington)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말하기가 선지자들의 말을 시험하거나 분별하는 활동,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지자의 신학이나 심지어 생활 방식에 대해 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남편의 주장이 참된지를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두고 남편을 반대 심문할 경우 특히 민감하고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왜 특정한 종류의 질문을 집을 위해 남겨 두는지를 쉽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경우 여자들은 (i)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남편들의 재판관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ii) 예배를 어쩌면 사적인 관심사가 섞인 긴 토론 시간으로 바꿀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며, (iii) 교회가 서로 열심히 말을 건네는 대신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하는, 절제되고 삼가는 말의 윤리를 거스르게 될 것이고, (iv) 하나님의 영의 창조적 활동에 앞서 있던 혼돈과 대비되는, 창조와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중의 감각을 흐트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폴 엘리스(Paul Ellis)

Die schweigende Königin(『침묵하는 여왕』)(킨들 위치 1319-1323).

10.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가?

여자들이 잠잠히 있는 교회를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찬송하지 않고, 성경을 낭독하지 않으며, 공적인 기도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몸을 돌려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아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도 그들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문 채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이상은 바로 이것인 듯 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여자들이 잠잠한 것을 좋아했고, 유대 랍비들과 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 말씀, 방언, 통역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절반이 잠잠해야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각자가 찬송과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면, 어떻게 모두가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수정처럼 분명합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14; 2:4, 17-18; 4:31; 21:9; 로마서 12:6; 16:1, 3, 6, 12; 고린도전서 12:7, 11, 27; 14:5, 26-27, 29, 31, 39; 고린도후서 5:17; 히브리서 5:12; 베드로전서 2:9; 4:10-11

여자들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4:34

신약은 여자들에게 발언하고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라는 격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이 복을 더 크게 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고린도의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문맥 안에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맥을 밝히기

이것은 문맥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 여자였고, 다른 이들은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다른 사람들 덕분에, 그리스 여자들은 시민법에 따라 공적인 모임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리킨 것은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리스 당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 여자들도 있었으므로,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넘어서 가리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탈무드에 성문화된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리켰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탈무드: 여자가 남자들 가운데서 자기 목소리를 울리게 하는 것은 수치다. 랍비들에 따르면 이상적인 여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회당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말하는 것은 남자들이 맡았습니다.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단락은 인용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따옴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이 말한 것, 곧 그리스와 유대의 법이 규정하듯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풀이한 다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제정신이냐?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면서 네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믿느냐?” 교회의 절반이 잠잠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제안이 바울을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가 대답을 외치는 소리가 거의 들릴 정도입니다. 적어도 영어 성경들이 그를 제대로 옮겼다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이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NIV: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AKJV: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바울은 “뭐라고?!” 하고 폭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들은 이 중요한 단어를 빠뜨립니다. 우리는 바울의 분노의 열기를 느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듣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집단으로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바울의 분노는 “The Source New Testament”(앤 나일랜드[Ann Nyland]) 번역에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완전히 헛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 말씀이 이른 곳이 너희뿐이냐?

토마스 쉬르마허(Thomas Schirrmacher)

전통적으로 교회 모임에서 여자들에게 주어진 침묵 명령으로 이해되어 온¹¹ 고린도전서 14:34-35도 고린도 사람들의 입장을 인용하거나 서술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 이 구절들은 바로 앞의 진술 “너희는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니”(고전 14:31)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여자들에게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11:13; 11:5 참조). 둘째로, 이어지는 구절은 남자들에 대한 반박이자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고전 14:36) 그렇다면 전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들 혹은 고린도 사람들인]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고전 14:33-36)

[저는 고린도전서 14:33b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를 고린도전서 14:33a에 붙였습니다. 저는 다니엘 C. 아리체아(Daniel C. Arichea)와 다른 이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4:33b가 어떤 경우에도 앞 문장에 속해야 하며 14:34a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교회에서'와 '교회에서'(14:33b; 14:34a)라는 표현이 한 문장에 두 번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¹² 그는 많은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보았다고 지적합니다. 현대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을 리 없는' 영어 King James Version(KJV)도 그렇습니다.]

인용설의 대표자 몇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¹³. 닐 M. 플래너건(Neal M. Flanagan)과 에드위나 헌터 스나이더(Edwina Hunter Snyder)에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이 구절에서 남성형으로 쓴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36에서 실제로 여자들에게 말을 건넸다면, 그는 그들을 여성형으로 불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¹⁴

다니엘 C. 아리체아와 크리스 우카추쿠 마누스(Chris Ukachukwu Manus)는 고린도전서 14:36의 'e'(ñ)가 앞의 내용에 대한 강한 반박을 이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예: 고전 11:22).¹⁵

로버트 W. 앨리슨(Robert W. Allison)은 그 밖에도 고린도전서 14:34에서 율법에 호소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에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는 요구가 없지만, 고린도전서 14:34의 결론은 창세기 3:16에 대한 랍비들의 주해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¹⁶. 그 주해는 우리가 처음에 탈무드를 통해 이미 알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11:2-16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구약에서 얻은 가르침과는 모순됩니다.

조이스 하퍼(Joyce Harper)와 존 A. 앤더슨(John A. Anderson)은 율법에 대한 호소가 탈무드에 나오는 여자의 전면적인 발언 금지에 해당하며, 여기서 율법에 호소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 교사들이 자기들의 율법 해석에 부당하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¹⁷. 그들은 탈무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여자가 남자들 가운데서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수치다.”¹⁸

S. 올렌(S. Aalen)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랍비들이 무언가를 허락하거나 금할 때 쓰던 랍비적 정형구라는 점을 들어¹⁹ 같은 견해를 논증하려 했습니다.

길버트 빌레지키안(Gilbert Bilezikian)은 고린도전서 14:34-35가 고린도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는 근거로 여러 논거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듭니다²⁰: 1) 주제의 갑작스러운 전환²¹; 2) 그렇지 않으면 생기는 고린도전서 11:2-16과의 모순²²; 3)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고(고전 14:31) 모든 사람이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전 14:39)는 본문의 문맥²³; 4) 바울이 결코 율법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점²⁴ – 이것은 분명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진술이며, 다음 논거와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5) 여자의 침묵에 관한 구약의 진술이 없다는 점²⁵; 6) 고린도전서 14:36의 헬라어 'e'가 강한 반박을 이끈다는 점²⁶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그 예가 많다는 점(고전 6:1-2; 6:9; 6:16; 6:19; 9:6; 9:8; 10:22; 11:13; 14:36)²⁷; 7) 고린도전서 14:35의 여성형에서 고린도전서 14:36의 2인칭 남성형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²⁸ 그리고 마지막으로 8)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인용이 많이 있다는 점(그가 보기에는 고전 1:12; 3:4; 6:12=10:23; 6:13; 6:18; 7:1; 8:1; 8:4; 8:8)²⁹.

C. H. 탈버트(C. H. Talbert)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인용설의 근거들을³⁰ 비슷하게 요약합니다.

“두 가지 논거가 이런 이해를 개연성 있게 만든다. 첫째, 36절에서 '만'(monous)으로 번역된 말은 남성 복수형이다. 이것은 '너희 남자들만'과 같은 풀어쓰기를 요구한다. 14:34-35가 바울의

명령이라면 남성형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14:34-35가 고린도 공동체 안의 한 남성 무리의 논거라면 남성형 호칭은 뜻이 통한다. 둘째, 14:34-35는 갈라디아서 3:27-28과 고린도전서 11:2-16에 나타난 바울의 입장과 너무나 강하게 모순되어서, 이것들을 조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왜곡에 이를 수밖에 없고, 대개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삽입설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4:34-35를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으로, 14:36을 바울의 분노한 대답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관성을 얻게 된다 ...³¹

다른 저자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전서 14:34-36이나 그 일부를 서슴없이 바울의 것이 아닌 것, 곧 후대의 삽입으로 보았습니다³². 삽입이라는 가정은 고린도전서 11:2-16의 경우와 달리 실제적인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³³ 하지만 제 생각에 이 근거는 삽입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롬 머피오코너(Jerome Murphy-O'Connor)는 한 연구에서 고린도전서에 대해 제안된 모든 삽입(곧 고전 2:6-16; 4:6; 6:14; 11:3-16; 15:31-32; 15:44-48)을 거부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4:34-35에서는 안타깝게도 삽입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34-35의 삽입설은, 신약의 몇몇 오래된 사본, 특히 'D'(베자 사본[실제로는 클라로몬타누스 사본을 말함])에서, 그리고 서방 사본 전통 전체에서 침묵 명령인 34-35절이 40절 뒤에 들어가 있다는 데에 근거합니다³⁴. 고든 D. 피(Gordon D. Fee)는 신약의 다른 어디에서도 – 훨씬 긴 본문인 요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6장을 제외하면 – 이런 단락이 그냥 여러 자리에서 발견되는 일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그 본문이 처음에 난외에 있었다고 할 때에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³⁵.

그러나 제 생각에 고린도전서 14:34-36에 '반대하여' 제시되는 이유 가운데 상당수는, 후대의 첨가라는 의미에서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반드시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인용하거나 그들의 견해를 서술한다는 의미에서의 '바울답지 않은' 성격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롬 머피오코너가 인용과 난외 주석(글로스)을 두 가지 해결책으로 나란히 놓은 다음 난외 주석 쪽을 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³⁶.

고린도전서 14:34-35를 고린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잠잠하라”는 장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언과 예언, 혹은 예언을 분별하는 일과 관련될 것이며, 말하는 것 일반과 관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³⁷. 바울이 선지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요구할 때(고전 14:30)에도, 아무도 그것을 전면적인 발언 금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예언을 멈추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테런 윌리엄스(Terran Williams)

Wie Gott Frauen sieht: Das Ende des Patriarchats(『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부장제의 종말』)(124쪽). 영어판 킨들 버전. 독일어판 Wie Gott Frauen sieht는 2026년에 종이책과 킨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불분명한 성경 구절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점검하고 점점 더 큰 명료함과 확신에 이르러야 하지만, 이 단락이 여전히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들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 두려워서 가장 보수적인 해석(견해 1)을 택한다면, 여자들이 완전히 입을 다문다는 것은 노래도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의 한 형태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의 입장에 서면서도 여자들에게 예언을 분별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만 금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에 대해 말하자면, 보수적인 접근을 따른다면 정말로 일관되게, 모든 여자에게 다음 교회 모임을 위해 머리 덮개를 준비해 두라고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학자들이 이 단락을 연구하면서 그토록 많은 서로 다른 입장에 이르므로, 우리는 모두 이 단락이 불분명하다는 데에 분명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은 – 모든 좋은 해석 방법에 따르면 – 교리적 결론이나,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실천에서 보편적인 명령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도 고린도전서 14장도, 여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거나, 동반자로서 남편 곁에 서거나, 남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절들이 상호보완주의자들에 의해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데 인용되어 왔는데도 말입니다.

신시아 롱 웨스트폴(Cynthia Long Westfall)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239쪽). Baker Publishing Group. 킨들 버전.

7.3.4 1세기의 여들과 그들의 대화 방식

왜 바울은 하필 여자들에게 그 원칙을 어긴 책임을 물었습니까? 남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 떠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남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은 여러 면에서 성별에 따라 나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집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함께 모였을 때 보이던 전형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작고 친밀한 가정 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여자들은 영적 은사와 상관없이 음식 준비와 배식과 뒷정리로 바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자들이 일을 수월하게 하고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자연스럽게 소란스러워지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여자들은 공적인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Chrysostomus)는 여자들에게 말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에는 여자들이 그런 가르침에 따라 잠잠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가운데 큰 소음과 많은 외침과 잡담이 있으며, 이곳[대성당]만큼 그런 곳도 없다. 여기서도 그들 모두가 시장이나 목욕탕에서보다 더 많이 떠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마치 쉬러 이곳에 오기라도 하는 듯이, 모두 쓸데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며, 그들은 조용하지 않으면 유익한 것을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의 말[설교]이 잡담과 싸워야 하고 아무도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케네스 베일리(Kenneth Bailey)는 이집트, 레바논, 예루살렘, 키프로스에서 머문 40년 동안 겪은 비슷한 경험을 들려줍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들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소그룹에서 여자들을 가르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여러 요인을 묘사합니다 [...].

7.3.5 고린도전서 12-14장의 결론으로서 고린도전서 14:36-40의 기능 바울은 날카로운 수사적 질문과 함께 갑자기 더 논쟁적인 어조로 바꿉니다. 많은 사람은 이 질문들이 여자들을 향한 것이며 고린도전서 14:34-35의 결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36-40절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이 단위는 방언과 예언과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에 관한 요약으로 14장을 분명히 마무리합니다(37, 39-40절). 앞에서 다른 성령의 은사와 사랑이라는 주제가 14장의 모든 논의의 문맥을 이루므로, 이 단락은 고린도전서 12-14장의 결론 역할도 합니다.

바울은 14장에서 여러 무리와 날카롭게 맞서고 그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그는 남성 복수형 "너희"(ὁμῶν, ὑμεῖς)로 그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6절의 날카로운 수사적 질문은 여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방금 바로잡은 모든 고린도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 그리고 모두가 한꺼번에 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자기가 한 모든 말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7.3.6 요약

예배 중에 말하지 말라는 여자들에 대한 바울의 지시(고린도전서 14:34-35)는, 섬김과 지도의 자리에 여자들이 서는 것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흔히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주어진 침묵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 침묵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며, 바울은 여자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뜻했습니까?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교회의 예배 상황이라는 맥락, 편지 안의 맥락, 그리고 여자들의 문화라는 맥락입니다. 이 맥락들은 바울이 여자들이 기도와 성령의 은사의 정당한 행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는 예배 중에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방언하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에게 준 지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자들에게 예배 중에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자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것은 말의 윤리에 관한 모든 전통에서 행동 규범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아내들을 집에서 가르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예배 중에 서로 이야기하거나 남편에게 속삭여서 질문의 답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

2022년 10월 17일 트위터에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4:34-35가 바울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사본상의 추가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구절이 제 생각에 '어떻게' 본문에 덧붙여졌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들의 한 가지 특징은 초기 사본들에서 두 군데 서로 다른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2

대부분의 사본에서 이 단락은 33절 뒤에 옵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본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34-35절 단락이 40절 뒤에 옵니다. 두 개의 비서방 사본을 제외하면 이 단락은 33절 뒤에 있습니다. 2/12

이것은 아마 복음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연구자일 고든 피(Gordon Fee)가 34-35절을 바울의 것이 아닌 첨가로 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교회가 34-35절을 33절 뒤에 두는 동안, 어떻게 서방 교회는 300년 동안 한결같이 이 구절을 40절 뒤에 둘 수 있었겠습니까? 3/12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 단락은 원래 33절 뒤에 있었는데, 40절 뒤로 옮겨졌다.
2. 이 단락은 원래 40절 뒤에 있었는데, 33절 뒤로 옮겨졌다.
3. 누군가 그것을 난외에 썼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긴 자리, 곧 33절 뒤나 40절 뒤에 그것을 본문에 넣었다. 4/12

바울 서신 가운데 어느 사본에서도, 이렇게 긴 단락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자리로 옮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1과 2는 전례가 없으며, 따라서 매우 개연성이 낮습니다. 5/12

그러나 필사자들은 때때로 난외에서 발견한 말을 본문에 넣었습니다. 원본을 올바르게 재구성하려면 학자들은 이런 증거를 살피고 아주 이른 시기의 사본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본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6/12

34-35절이 왜 두 군데 서로 다른 자리에 나오는지, 알려진 필사 관행에 맞는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본문 전승의 이른 단계에서 누군가(아마 디모데전서 2장의 어휘에 영향을 받아) 이 본문을 설명하는 주석으로 난외에 적어 넣었습니다. 7/12

어쩌면 그는 자기가 바울의 분명하고 참된 뜻이라고 여긴 것을 분명히 하려 했을 것입니다. 독자들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8/12

이 사본을 베낀 후대의 필사자들은, 이 문장들이 원래 실수로 빠졌다가 난외에 써 넣는 방식으로 사본이 교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외는 쪽을 다 쓴 뒤에 문장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9/12

28절과 30절의 침묵 명령을 눈여겨본 한 필사자는, 새로운 침묵 명령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리(33절 뒤)에 그 난외 주석을 넣었습니다. 이 사본은 비서방 필사자들이 베꼈습니다. 10/12

다른 필사자는 그것이 본문이 논리적으로 끊어지는 40절 뒤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본은 서방 필사자들이 베꼈습니다. 이것이 이 단락에서 의미 있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두 자리입니다. 11/12

중요한 참고 사항: 이것은 바울 서신의 다른 어떤 사본에서도 볼 수 없는 단 한 번의 경우이므로, 다른 본문들의 진정성을 흔들지 않습니다. 12/12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의 생각의 흐름과 논증 구조는 (사본 증거와 다른 내적 증거와 함께) 고린도전서 14:34-35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줍니다. 34절에 나오는 바울답지 않은 두 표현, 곧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와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3

본문을 읽다 보면, 34-35절이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 구절들이 없으면 본문이 직관적으로 더 잘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4-35절이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2/13

고린도전서 14:1-25는,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 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덕을 세운다는 일관된 논증입니다. 26-40절은 1-25절을 바탕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일련의 지시를 열거하는 일관된 구조적 단위입니다. 3/13

이 지시들을 묶는 원칙은 예배 모임에서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6-40절의 문학적 구조는 교차 대구 구조입니다. 교차 대구는 대칭적인 문학 형식입니다. 4/13

교차 대구 구조에서는 첫 번째 진술이 마지막 진술과 평행을 이루고, 두 번째 진술이 끝에서 두 번째 진술과 평행을 이루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단락의 절정이 가운데에 있다는 점입니다. 5/13

고린도전서 14:26-40에서 절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이 절정의 주제는 문학적 구조의 처음과 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대칭은 34-35절 때문에 끊어집니다. 6/13

34-35절에서 여자들에게 제한 없는 침묵을 도입하는 것은 문학적 구조와 무관합니다. 37-39a절이 하듯이 앞의 예언이라는 주제를 다시 요약하는 대신, 절정 뒤에 새로운 요소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7/13

34-35절은 절정이 아니며, 단락의 도입이나 결말과 연결되는 주제를 언급하지도 않고, 단락의 교차 대구 구조 안에서 짝을 이루는 본문도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바울의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에서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일관되었을 구조도 깨뜨립니다. 8/13

게다가 34절의 문법은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바울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 “그들은 말해서는 안 되며, 율법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전혀 바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말하는 것과 같이”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나 해당 율법을 인용합니다. 9/13
-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구약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자들의 침묵이나 복종을 명하는 구약의 율법도 없습니다. 이 단락은 여자들에게 침묵/복종을 규정하는 유대인의 구전 율법을 가리키거나, 공적인 모임에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규정한 그리스의 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10/13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구전 율법이나 그리스-로마의 법을 결코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분명히 그런 규정을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위한 규칙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위한 규칙을 세우려고 구약의 법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11/13

2)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의 다른 어떤 명령에서도 사람들의 한 범주를 “교회들에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편지가 원래의 수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배포되던 후대에 더 잘 맞습니다. 12/13

내일은 고린도전서 14:34-35에 대한 널리 퍼진 평등주의적 독법, 곧 바울이 36-38절에서 반박하려고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다는 해석의 강점과 약점을 다루겠습니다. 13/13

바울은 14:36-38에서 반박하려고 고린도전서 14:34-35에서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합니까?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널리 퍼진 평등주의적 독법입니다. 이 해석에는 여러 강점이 있지만, 저는 증거가 그것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1/7

강점:

- 14:34-35와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특히 11장과 14장의 나머지) 사이의 모순을 해소한다
- “율법”에 대한 언급이 왜 틀림없이 바울답지 않게 느껴지는지 설명한다
- 14:36-38의 본문은 거짓 예언을 반박하는 데 잘 맞는다. 2/7

약점:

- 바울이 반박하는 다른 고린도 인용문들은 이만큼 길지 않다
- 36-38절의 어떤 것도 그가 34-35절을 반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 왜 모든 서방 본문 사본이 34-35절을 40절 뒤에 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 여전히 바울의 논증의 흐름과 구조를 끊는다 3/7

이 해석의 한 변형은, 바울 자신이(혹은 정확히 말하면 그의 조력자가) 자기 말이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36-38절 옆 난외에 34-35절을 썼다고 봅니다. 나중에 필사자들은 그것이 본문에 속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7

이것으로 몇 가지 반론, 특히 흐름과 구조에 관한 반론과 이 구절들이 사본에서 두 자리에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에는 충분히 답이 됩니다. 저는 증거가 34-35절이 초기의 한 필사자가 난외에 쓴 삽입구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5/7

그러나 34-35절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원래 편지의 일부로 보는 모든 해석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거짓 예언을 난외에 써서 36-38절이 그것을 반박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해석입니다. 6/7

어쨌든 이런 독법들은, 바울이 같은 편지에서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자기 말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생각이나, 우리가 해석의 곡예를 충분히 부려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14:34-35가 바울의 명령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7/7

고든 D. 피(Gordon D. Fee)

c. 여자들의 잠잠함에 대하여(14:34-35)

이 주석에서는 여기서 설명할 이유 때문에 이 구절들을 의도적으로 40절 뒤에 다룹니다. 대부분의 사본(P46 A B K Ψ 0243 33 81 1739 Maj 포함)은 이 구절들을 이 자리에 둡니다. 그러나 D F G 88* a b d f g 암브로시아스터(Ambrosiaster), 세둘리우스 스코투스(Sedulius-Scotus)에서는 40절 뒤에 나옵니다. 곧 서방 전통 전체(즉 그리스 서쪽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장들이 정말로 이

편지에서 바울이 쓴 것이라면,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의 약 1,200년에 걸친 필사 전통에서 이만한 규모로 일어난 유일한 자리 이동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승의 역사 어디에도, 헬라어 사본이든 다른 역본이든,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종류의 다른 유일한 “자리 이동”은 몇몇 초기 사본에서 마태복음 5:4-5의 처음 두 팔복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신약학자는 이 본문의 진정성을 진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 나타나는 눈에 띄게 바울답지 않은 표현까지 더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의 논의 외에도 특히 P. B. 페인(P. B. Payne)의 *Man and Woman, One in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Paul's Letters* (Grand Rapids, 2009), 217-67에 실린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균형 잡힌 서술을 보십시오. E. J. 앱(E. J. Epp)이 말했듯이 이 서술은 “꼼꼼하게 표현되었고, 설득력 있게 논증되었으며, 지속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같은 수준으로 응답해야 하며, 흔히 보이는 방어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 자체의 주해는 본문 문제와 맞물려, 이 본문이 진정한 바울의 글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더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바울이 더 넓은 문맥에서 주장해 온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본문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진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은, 여자가 모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문화에서 이 본문을 영원한 금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11:5)에 대해 담담하게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리 내어”, 그리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맥락에서라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학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수많은 문헌에 말없이 깔려 있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에 관한 주변 단락 전체는, 무엇보다 해석학적 이유를 들어, 오늘날의(대개 서방의)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은연중에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하고 아마도 진정하지 않은 단락만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을 위한 말씀으로 골라냅니다. 즉흥적으로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은 “예의 바른” 서방 문화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실상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 모두는 쉽게 이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³⁸

필립 J. 애벗(Philip J. Abbott)

필립 J. 애벗(Philip J. Abbott)의 석사 학위 논문(Master of Arts), 페퍼다인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 2015년 5월

전문은 여기에서: [Bringing Order to 1 Cor 14:34-35 | Philip Abbott - Academia.edu](#)

고린도전서 14:34-35에 질서를 세우기

결론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4:34-35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본문에 바울이 아닌 누군가가 끼워 넣은 삽입구라고 주장하지만, 이 이론은 개연성이 낮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이 구절들은 바울에게 낯선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고린도의 여자들에게 토라의 바탕에 있는 질서의 원칙에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논증을 뒷받침하는 것은, 여자들이 회중 앞에서 자기 남편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지시입니다. 그런 행동은 예배에 있어야 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수백 년 동안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바울이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시대를 초월한 교회 관행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의 작은 그리스도인 무리의 질서 있는 예배를 방해하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이 관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을 그 주제에 대한 그의 견해의 완전하거나 최종적인 설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들에 명백한 여성 혐오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사도 교부들(로마의 클레멘스 같은 남성 우월주의자들까지도)이 여자들을 침묵시키려고 이 단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아니, 아예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단락이 후대에 본문에 삽입된 것이라고 잘못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 구절들이 나중에 삽입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 단락을 알고 있었고, 남녀 모두를 위한 예배 질서에 관한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사도 교부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교부들의 시대 이후에야 본문에 들어간 삽입구가 현존하는 고린도전서의 모든 사본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극히 있을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자들을 교회에서 침묵시키려고 고린도전서 14:34-35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는 라틴 교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주후 160-220년)입니다. 그와 그 뒤에 여자들을 침묵시키려고 이 단락을 인용한 서방 교부들이 이 단락의 자리가 옮겨진 서방 본문 유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자리 이동은 아마 2세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본들이 마구잡이로 조작되던 시기였고, 교회가 로마 세계에서 자리를 잡으려 애쓰던 시기였습니다. 서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에클레시아(ekklesia)를 그리스-로마의 에클레시아와 일치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관행과 사회적 질서에서 국가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갈레노스(Galen) 같은 로마 철학자들이 본문을 다루는 비판적 방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교회적 의제를 뒷받침하려고 본문을 해석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가르침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기록된 글을 자기 생각에 맞게 바꾸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35의 자리 이동은 아마 주후 2세기 후반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서방 그리스도인들은 (동방 그리스도인이었던) 로마의 감독 엘레우테루스(Eleutherus)를 설득해 몬타누스주의를 정죄하게 하려 했습니다.

처음에 엘레우테루스는 몬타누스 운동을 용인했고, 이 분파를 축복하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정통에서 벗어난 권위를 주장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감독은 결국 서방 그리스도인들의 설득을 받아 축복을 철회하고 이 분파를 정죄했습니다. 몬타누스 운동을 둘러싼 이 논쟁 한가운데서 서방 본문의 필사자들이 본문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여성의 예언을 정죄하는 데 사도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에서는

잘 알려진 여선지자들 때문에 여성의 예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서방의 필사자들은 아마 고린도전서 14:34-35를 몇 절 뒤로 옮겨, 질서 있는 예배라는 문맥에서 떼어냈을 것입니다. 이 미묘한 자리 이동 때문에 독자들은 이 단락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보편적 칙령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여성 혐오적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리 이동은 본문을 질서 있는 예배라는 문맥에서 떼어 내고, 본문의 겉보기에 여성 혐오적인 어조를 두드러지게 합니다. 자리가 옮겨진 단락이 품고 있는 반여성적 메시지는 몬타누스주의와 싸우던 서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몬타누스 논쟁과, 2세기 로마에서 본문 전승의 “대체로 부패한 기반”이 서방 본문의 배경을 이룹니다. 매우 변하기 쉬운 이 본문 형태는 바꿔 쓰기, 원래 독법에서 벗어난 수많은 이탈, 본문의 재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 본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 혐오적 변경들인데, 이것들은 분명한 여성 혐오적 의제를 드러냅니다. 서방 본문을 만든 이들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교회상을 밀고 나가려고 신약 성경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대체로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많은 독법을 거부했지만 그들의 여성 혐오적 수사에는 설득당한 오리게네스(Origen) 같은 사람에게서조차 그랬습니다.

요약하자면, 몬타누스 논쟁과 여성 혐오적 독법을 지닌 서방 본문의 형성은 둘 다 2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작용한 이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서방 본문의 여성 혐오적 독법은 서방의 기독교 이념을 위협하던 운동(몬타누스주의)에 대한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려고, 특히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이탈된 권위 주장에 맞서, 이 서방 그리스도인들은 권위 있는 사도적 본문이 자신들의 사상을 뒷받침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전서 14:34-35에 담긴 도발적이지 않은 바울의 질서 호소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모두 그들의 편집상의 술책에 희생되었습니다. 이 단락은 자리가 옮겨지자마자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그들의 영적 은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침묵 명령이 되었습니다.

질서를 세우려는 시도

고린도전서 14:34-35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많은 글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락이 성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메시지와 그것을 둘러싼 본문 상황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이 요구의 잠재적으로 여성 혐오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는 많은 사람에게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35를 다루는 문헌의 분량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이동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 받은 관심이 얼마나 적은지 놀랍습니다. 해석자들은 고린도전서 14:34-35의 자리가 옮겨진 본문들의 성격이나 기원을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많은 사람이 이 단락이 일부 사본에서 자리가 옮겨져 있다고 언급만 하고, 14:34-35는 아마 삽입구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14:34-35에 질서를 세우기」입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고린도전서 14:34-35가 기록되게 한 사회적 환경, 그 문학적 문맥, 서방 본문에서의 자리 이동, 그리고 이후

여성을 위한 침묵 명령으로 사용된 일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34-35에 대한 현재의 무질서한 연구 상황은 상당 부분 이 요인들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고린도전서 14:34-35의 메시지와 역사를 밝히려 했지만,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주제와 질문도 제기했습니다. 첫째, 여성 억압 외에 또 어떤 교회 관행이 조작된 본문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4:34-35의 자리 이동이 특정한 교회 관행을 정당화하려 한 유일한 편집상의 개입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본문비평은 대개 신약 성경의 원본문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비평은 현대 기독교를 형성해 온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둘째, 이 연구는 고대 기독교에서 침묵당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이미 널리 퍼진 움직임에 동참합니다. 이 초기 신자들은 누구였고,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셋째, 이 연구는 독자가 자신의 해석학적 관행을 점검하도록 자극하려 합니다. 몬타누스주의와 싸우던 서방 교부들처럼, 우리 또한 어떤 면에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거룩한 본문을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일은 일어날 법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는 성경을 문맥에서 떼어 내어 자기의 개인적 목표를 정당화하는 데 쓰는 잘못을 범합니다. 결국 신약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개인적 의제라는 눈가리개를 벗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해석을 평가해야 합니다.

돈 카슨(Don Carson)

이 링크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만 인용합니다.

6. "Silent in the Churches": On the Role of Women in 1 Corinthians 14:33b-36 | Bible.org

고린도전서 14:33b-36의 해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2-16에서 몇 가지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문을 처음 읽으면 그가 명령하는 침묵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시되는 해결책들은, 어떤 귀신 들린 경우의 귀신들처럼, 그 이름이 "군대"(Legion)입니다. 저는 그중 몇 가지를 나열하고 한두 가지 우려를 밝히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문맥상으로나 주해상으로 가장 확실하다고 보는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JR: 이어지는 본문에서 카슨은 본문비평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데, 분량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끝부분의 설명만 인용합니다.

IV.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 (카슨의) 해석

또 다른 해석은 여러 저자가 제시했으며, 그에 맞서 제기되는 반론들에 답합니다. 이 해석은 다른 곳에서 자세히 변호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윤곽만 그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방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 앞에 제시된 예언들을 신중하게 분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그런 예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1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여자들이 그런 예언을 말로 판단하는 일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자들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에반스(Evans)는 "율법"에 호소하는 이 말을 고린도 사람들의 입장의 특징으로 보는 견해에 동조하는 듯, 이것을 바울 자신의 율법 호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답지 않게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꽤 이상한 평가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미 한 번 “율법”에 호소했기 때문입니다(14:21 참조). 그때 그는 구약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이 말로 바울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창세기 3:16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창세기 2:20b-24의 창조 질서를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의 역할을 논할 때 다른 두 곳에서 이 구절들을 분명히 언급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1:8-9; 디모데전서 2:13). 물론 창세기 2장의 단락은 잠잠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므로, 두 사람이 맡는 역할에 일종의 본보기가 정해졌음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이 창조 질서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적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끌어냅니다. 고린도에서 예언을 판단하는 맥락에서는, 아내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그런 복종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예언을 말한 첫 번째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보면, 바울은 여자가 교회가 인정하는 가르치는 직분을 남자들 위에서 행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습니다(디모데전서 2:11 이하). 그리고 예언을 신중하게 분별하는 일은 이 가르치는 기능에 속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그 예언들의 여러 측면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왜 모든 교회의 관행(33b절)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34절)까지 무시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에 너무 들떠서, 감히 그것을 성경과 사도적 전통에 담긴 참된 전승에 맞세우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 아래 이 전통을 해석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모든 교회가 같은 본문과 같은 복음을 자신들과 전혀 다른 교회 관행으로 옮겨 놓은 것을 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36b절 참조)?

이 해석에 대해 몇 가지 마무리 소견을 덧붙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 해석은 14장의 흐름에 맞습니다. 이 장의 후반부도 여전히 방언과 예언에 중점을 두지만, 그 중점은 교회가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질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3b-36절은 이 설명에 잘 들어맞습니다. 바로 앞의 구절들은 선지자들을 판단하는 일을 다룹니다. 이 구절들(33b-36절)은 그 논의를 더 세밀하게 다룹니다. 14장의 마지막 구절들이 보여 주듯이 고린도전서 12-14장의 전체 주제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 구절들에 대해, 논증의 흐름에 이만큼 잘 맞는 해석은 달리 없습니다.

둘째, 이 해석은 본문의 흐름뿐만 아니라 본문의 구조에 비추어 보아도 의미가 통합니다.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지배합니다. 이 장의 대부분은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26절 이하는 분명히 모임에서 이 두 은사를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한 실제 지침을 다룹니다. 26절은 꽤 일반적입니다. 27-28절은 방언하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 제한을 다룹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예언으로 넘어가 이렇게 씁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말한 것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구절의 두 부분이 따로 다루어집니다. 첫 부분(“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은 30-33a절에서 다루는데, 예언을 말하는 데 대한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다른 이들은 말한 것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은 33b-36절에서 다루는데, 예언을 판단하는 데 대한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이 해석에 대한 주된 반론은, 바울이 여자들에게 예언은 허락하고 예언을 평가하는 것은 금지한다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이 구약의 위대한 기록

선지자들과 같은 권위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그 권위가 즉시 인정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이 반론은 별 무게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신약 성경의 “예언”이 이방 선지자의 활동(디도서 1:12)에서 구약의 정경적 예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범주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로 인정되었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서 신적 권위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판단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고린도전서 14:29), 사도 바울이 대변하는 진리의 유산보다 필연적으로 낮은 권위를 지녔습니다(14:37-38).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가르침을 예언 위에 두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합니다. 특히 가르침을 협상할 수 없는 사도적 유산의 일부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유산은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예언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로 부분적으로 쓰입니다. 또한 예언 자체가, 사도적 보화와 달리,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교사의 말이 검증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예언은 판단받아야 하지만 가르침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교사와 가르침을 판단할 책임을 지라고 격려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디모데전서 1:3; 6:3-5; 디도서 1:9-14; 히브리서 13:9; 베드로후서 2:1 등).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 그런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며, 사도적 가르침의 총체, 곧 협상할 수 없고 이후의 가르침과 예언 모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일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넷째,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자기희생으로 특징지어지는 매우 높은 기준입니다. 또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많은 것을 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리스의 에클레시아(ekklesia), 곧 공적 모임에서는 여자들이 아예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인의 에클레시아에서는 여자들이 성령에 힘입어 말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사회적 관습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으로도 복음은 여자들을 특정한 문화적 제약에서 참으로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할의 모든 차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더 넓은 신약 성경의 근거 위에서 이렇게 논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남아 있는 서로 다른 역할들은 이 창조된 질서 속의 삶의 일부이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곧 종말론적 성령이 주어진 때부터,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만물의 완성 때까지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다섯째, 이 해석이 옳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주제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Copyright 1997 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CBMW). 모든 권리 보유.

HJR 논평: 10여 년 전 카슨의 책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것은 보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결합된 그의 날카로운 사고, 그리고 그의 사고의 깊이는 지금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저는 그를 앞에서 언급한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와 즐겨 비교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유가 무엇이든, 켈리의 약점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카슨(Carson)은 두 구절을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서, 바울이 염두에 두었을 법한 문화적 배경을 전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관성 있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다만 그 해석은 침묵을 절대화하지 않고, (예컨대 위더링턴[Witherington]처럼) 예언을 판단하는 일에 한정합니다. 주된 논거는 창조 질서입니다. 율법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그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와 역할 분담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판단은 알려진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카슨은 여자가 예언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자기 자신의 예언을 판단해도 됩니까? 그 경우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가르치는 셈입니다.)

이 해석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저는 다음 사항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며,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34절은 절대적인 침묵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린도전서 11:5와 14장 전체에 모순되어 말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렇습니다.

카슨의 해석은 하나의 전제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그는 이 해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곧 창조에 근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의 남자에 대한 복종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 두 구절을 지금처럼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생각이 갈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런 지위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것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반대입니다. 이 장의 핵심 진술은 이것입니다(고린도전서 11:11-12).

11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아니하니라.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가 머리라는 것은 그의 권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말하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졌거나 남자에게서 생겨났고, 그에게 돕는 자로 짝지어졌습니다. 그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하게 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불평등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슨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두 구절을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 본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11 여자는 조용히 모든 복종 가운데 배우라. 12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남자를 지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14 그리고 아담은 속지 아니하였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느니라.

디모데전서가 보여 주듯이, 에베소 교회에는 분명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그곳에는 여기서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어떤 특정한 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는 먼저 배우지 않고 오만하게 가르쳤으며, 아마 거짓 가르침까지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도, 자신이 가르친 다른 어떤 남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배하다”는 가르치는 권위가 아니며, 건전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권위를 가로채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도 그렇게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권위를 낳지는 않습니다. 동물들도 그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이 여자에 대한 예로 속임을 당한 하와를 듅니다. 이로써 그는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결국 어떤 여자에게나 어떤 남자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묘사합니다.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아직 없을 때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와를 더 잘 가르쳤어야 했고, 하와도 어쩌면 더 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서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 금지를 끌어내는 것은, 부드럽게 말해도 설득력이 없으며, 여자들이 가르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본문들(브리스길라 등)과 모순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슨이 “부끄러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의 예언을 판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자가 여자의 예언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화적 맥락에서 부끄러운 것입니까?

에크하르트 J. 슈나벨(Eckhard J. Schnabel)

Schnabel, E. J.,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 Neues Testament, SCM R. Brockhaus/Brunnen Verlag, Witten/Gießen, 제4판 2018

34 여자들은 교회 모임에서 잠잠해야 합니다라는 지시를 어떤 이들은, 여자들이 공적 예배에서 말로 참여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진술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보아 바울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믿지 않으며, 그 결과 34-35절을 바울의 것이 아닌 난외 주석(글로스)으로 제외합니다.

첫째 입장은 고대 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루터(Luther), 슈페너(Spener), 친첸도르프(Zinzendorf) 등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교파는 오늘날까지 이 입장을 지키며, 예컨대 여자들이 성경 봉독에 참여하거나 성찬에서 순서를 맡지 못하게 합니다. 34-35절을 진정한 바울의 글로 보는 일부 해석자들은 이 진술에서 바울의 여성 혐오적 태도와 성경 전반의 남성 우월주의를 보여주는 증거를 봅니다.

많은 해석자는 이른바 *mulier taceat* 구절(“여자는 잠잠하라” 구절)을 바울의 것이 아닌 난외 주석 또는 삽입구로 제외합니다. 34-35절이든, 33b-35절이든, 33b-36절이든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비평적 처리를 위해 본문비평적 근거와 문학비평적 근거가 제시됩니다. 사본 증거에 대한 논의는 위의 ‘본문비평 주해’를 보십시오.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이 구절들이 이 편지의 원래 본문에 속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학비평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4-35절이 사고의 흐름을 끊는다는 주장, 2. 문맥은 방언과 예언,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기여하는 바를 말하는데 34-35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지적, 3. 바울답지 않다고 하는 표현들, 4. **34-35절과 11:5 사이의 모순. 이것은 결정적인 논거로 여겨지고, “명백하다”고 일컬어지며, 흔히 이 모순은 “어떤 경우에도 해소될 수 없다”는 판단과 연결됩니다.** 34-35절의 진술은 설령 바울에게서 비롯되었다 해도 “신학적 정당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구체적인 권면의 지시에 필요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들은 주해를 진행하면서 답하겠습니다.

원래 문서의 본문에 분명히 속하는 본문을 난외 주석으로 제외하는 것은 언제나 절망의 몸짓입니다. 신학적 입장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도 문학적 진정성의 문제에 충분히 믿을 만하게 답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자신이 해석해야 할 본문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문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저자의 비슷한 진술과 비교하고 문맥을 꼼꼼히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역사가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운 본문에서는 때때로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는 설명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어려운 본문을 제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며,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만이 아닌) 주석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34-35절의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34-35절을 바울의 본문으로 설명하려는 몇몇 제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 11:5와 14:34-35의 진술은 고린도 서신 교환의 서로 다른 단계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침묵 명령은 나중의 편지에 속하며, 그 편지에서 바울은 더 최근의 정보에 따라 고린도의 영광을 누그러뜨리려고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편지 분할 가설은 차치하더라도, 이 설명은 11:16과 14:33b에서 다른 교회들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2. 34-35절의 본문은 바울이 썼지만, 그의 견해로서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의 편지에서 가져온 **인용문으로서**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서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고, 바울은 36절에서 이 입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구에는 34-35절이 인용문이고 36절이 바울의 논평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 주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3. 바울은 11:5에서 여자들의 참여를 마지못해, 그리고 머리 덮개 또는 머리 모양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양보하며, 14:34-35에서 우리는 그의 본래 견해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5가 양보라는 것은 문구로도 문맥으로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4. 11:5는 가정에서의 사적인 경건 모임을, 14:34-35는 공적 예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모임을 다루며, 당시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즉 가정 모임과 교회 모임 사이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 11:5는 공적으로 예언해도 되는 미혼 여성들을 말하고, 14:34-35는 기혼 여성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본문에서 반드시 도출되는 가정이 아니며, 특히 11:5와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6. 종교개혁자들과 경건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은, 11:5는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해도 되는 직분을 맡은 여성들을, 14:34-35는 교회 직분이 없는 여성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1세기 그리스도인 교회들에 대해 설득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7. 바울은 랍비 전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 따르면 여자들은 예배에서 공식적인 기능을 맡지 않았고, 배움의 집에서 질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랍비 문헌의 연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설명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어디에서도 공식적 기능과 비공식적 기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8. 바울은 14:34-35에서 여자들이 방해가 되도록 **끼어들어 말하거나 끼어들어 묻는 것을 막는**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자들의 기도와 예언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33b절부터 예배 질서의 다른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본문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끼어들어 말하는 남자들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이 끼어들어 말하는 여자들만 언급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9.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서로 다른 역할을 말하고 있으며, 그 역할들이 두 가지 사회적 경험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11:5는 예배에서의 기도와 예언을, 14:34-35는 남자들의 협의와 가르침의 대화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E. 슈테게만(E. Stegemann)과 W. 슈테게만(W. Stegemann)의 이 설명은 **남자들의 명예 개념과 여자의 수치가 작용하는 문화적 관습이 한몫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예배 의식"과 "협의"의 구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르침의 대화"로 묘사되는 이 "협의"는 수치의 원인만큼이나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11장의 문맥에서 34-35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다음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1. 권위. 34절에서 바울은 복종을, 11:2-12에서는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말합니다. 2. 여자들이 "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관계(35절). 3. 부끄러움(αἰσχρότης, 35절). 34-35절은 분명 문화적 문제가 작용하는 사안을 다룹니다. 그 사안에서는 여자와 그 여자를 책임지는 남자 - 남편이나 아버지나 후견인 - 의 관계, 그리고 공적인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앞의 문맥은 예언의 말을 판단하는 일(29-33절)을 다루고, 뒤따르는 문맥인 37절에서도 선지자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예언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과정(29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재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판단이 진행되는 중에,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나 후견인이 전한 예언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판적으로 **pater familias** (가장)을 캐묻는 것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모욕(αἰσχρότης)으로,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그로써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남편이나 아버지나 후견인의 예언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집에서 물으라고 지시합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해석에 대한 흔한 반론은 **그 모든 것이 본문에 그렇게 정확히 쓰여 있지는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전제된 가정들은 본문 안에 **분명한 근거(여자들, 남자, 집, 부끄러움)가 있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W. 슈라게(W. Schrage)의 유일한 반론은 "왜 하필 29b절이 겨냥되어야 하며, 왜 예언하는 능력이 그 예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 근거를 대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반론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 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여자들의 공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³⁹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ἀλλὰ ὑποτασσέσθωσαν). 반의 접속사 ἀλλά는 **여자들의 침묵이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범주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καθὼς καὶ ὁ νόμος λέγει)라는 표현을 많은 이들은 창세기 3:16(“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과 연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여자의 침묵도, 여자의 복종도 말하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어렵습니다. 민수기 12:1-15도 관련 본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한 아론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랍비 주해는 여자들이 공적 예배 모임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근거로 신명기 22:16(“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을 들었습니다. 시프레 신명기(Sifre Deut) 22:16 §235 (117b)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자리에서(또는: 남자를 대신하여)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일반적으로 창조 질서(창세기 2장)를 가리킨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λαλεῖν) 일반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αἰσχρόν ἐστιν) 말, 곧 부적절하고 수치스럽고 추문이 되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11:5에서 바울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여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곧 자기 (남편인) 남자에게 수치를 안기는 여자들에게 대해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 모임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남편인) 남자의 명예를 손상시켜 그에게 수치를 안겨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남편에게 수치를 안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질문으로 남편이 한 예언의 말이 진짜인지 검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남편에게 수치를 안깁니다. 반대 심문은 언제나 난처하고 굴욕적인 일이며, 결과가 부정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혼) 여성들은 이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HJR 논평: 슈나벨의 연구에 그가 이미 언급하지 않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덧붙일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의 주석들은 큰 유익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전문가는 논거에 두는 비중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결론도 서로 다릅니다.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 자신이 인정하듯 본문에서 그렇게 직접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든 설명 시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이 본문이 – 이 편지의 다른 몇몇 구절처럼 – 인용문일 가능성을 그는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일축합니다. 이 구절들이 주변 문맥과 모순된다는 점과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제가 보기에 너무 가볍게 다루어집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이리저리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것이 전면적인 침묵 명령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약과 개인적인 결론

이 두 구절의 해석에는 네 가지 주요 입장(과 그 변형들)이 있습니다.

- 예배에서 여자들의 절대적인 침묵

- 조건적이거나 상황에 따른 침묵, 또는 적절한 참여(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처럼) – 일부는 여기에 제한을 둡니다. 가르치지 말아야 하므로 예언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바울이 반박하려고 인용하는 인용문이다.
- 후대에 삽입된 것이며 진정한 바울의 글이 아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100% 확실하거나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내용 면에서 저는 앞의 글들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인용문이거나 난외 주석(글로스), 곧 바울의 것이 아닌 삽입이라는 쪽으로 기웁니다. 저의 주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34절은 절대적인 침묵 명령입니다. 여자들은 질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35절).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면, 저에게 그것은 절대적인 침묵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4장의 문맥과 편지 전체의 문맥에서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1:5는 원칙적인 진술입니다. 그것은 모임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반적인 관행을 묘사합니다. 그 배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받는 성령의 은사와 만인제사장직이 있습니다(물론 고린도전서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대하신 방식이 이에 반대합니다. 바울에게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섬김을 묘사하는 방식도 이에 반대합니다.

언급된 율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이나 3장과의 연결은 매우 모호하며, 그 자체가 이미 가부장적인 방향의 해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성의 관계는 대칭적이 아니라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으로 규정되며, 그것으로 복종과 침묵이 정당화됩니다. 최초의 인간들의 관계를 동등함으로 해석하면, 그 근거들은 무너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종은 언제나 피차 복종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는 결코 위계적 차이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차이는 폐지되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관계들 안에서가 아니라, 이미 새 창조를 나타내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빛나가는 사람은 바울의 본문들을 잘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것이 삽입이라면, 저에게는 좋은 씨 사이에 뿌려져 마지막까지 자라는 가짜 씨, 곧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구절의 영향사는 재앙입니다. 침묵하는 여자들은 바로 옛 뱀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쏟아부은 수백만 시간의 연구와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허용하십니다!
- 인용문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과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인용문은 이 자리에 잘 맞지 않습니다.
- 이것이 바울의 말이라면, 그는 절대적인 침묵을 뜻했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의) 예언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앞뒤 문맥에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 되었고, 모두가 당혹스레 바라봅니다.

막은 내렸는데 모든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사천의 선인』 [Der gute Mensch von Sezuan]을 자유롭게 바꾼 말. 같은 주제를 다룬 에르빈 슈미트[Erwin Schmidt]의 글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운동에 대하여

인용한 글들을 하나하나 읽은 사람은, 절대적인 침묵 명령을 주장하고 실천하고 변호해 온 것이 바로 형제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이 이 운동 안에서, 이른바 “폐쇄 형제단” 계열에서 자랐습니다. 마흔 살이 되어서야 이사를 계기로 온건한 그리스도인 교회(캄프텐)로 옮겼습니다. 그때까지 저 자신도 형제운동의 이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기억할 수 있는 때부터 늘 이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한 번도 여기에 온전히 “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밖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것을 한 번도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는 다른 주석가들의 글을 읽어 보면, 그들이 이 견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달리 묻자면, 형제운동의 형제들은 이 침묵 명령에서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변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왜 자매들, 곧 모인 사람들의 50%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지극히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두 문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교회에 해가 되도록 해석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그것을 거의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처럼 다루고, 심지어 자신의 분리를 그것으로 정당화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 모임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라고 자매들에게 주는 적극적인 계명이나 요구는 없습니다. 이 침묵 논증⁴⁰을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었고 사도들의 글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이것도 침묵 논증입니다), 그런 요구가 아예 필요 없었다고 말입니다.

선입견 없이 보면, 다음 인물들의 은사와 섬김, 그리고 다음 사건들은 공적으로 말하는 것 없이는 – 모임에서 말하는 것 없이도 –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17-18: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1:8-9: 이튿날 우리가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곧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교회 모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린도전서 14:39).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 모임/교회/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네 딸은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집에서?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사람들이 신탁을 받으러 가듯이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터에서? 아마

아닐 것입니다. 모임에서? 이것이 가장 그럴듯합니다. 바울은 예언을 바로 그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diakonos)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교회가 모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의 일꾼일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교회가 모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주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2-3: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을 돕고 ...

예배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복음에 함께 힘쓸 수 있습니까?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그들의 불화가 교회 전체에 위협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들이 모인 교회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납득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눔바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 여자는 집주인으로서 집을 내주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나 남편이 부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입견 없이 볼 때, 그 여자가 예배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본문을 – 더 있을 것입니다 – 오직 고린도전서 14:34-35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두 구절에 여기 언급한 다른 모든 본문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을 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다른 모든 본문이 지닌 더 큰 무게를 눌러 버리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저울질과 비교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의적인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침묵 명령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형제운동이야말로 신자의 만인제사장직을 변호했습니다. 그것이 형제운동의 상징이었고 강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자매들을 잇을 수 있었는지, 그들의 깊은 성경 지식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매들도 함께 찬송하고 속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궁색한 달래기일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아니면 성령께서는 모임에서 남자들 안에서만 일하십니까?

Hans-Jörg Ronsdorf, 아우크스부르크, 2022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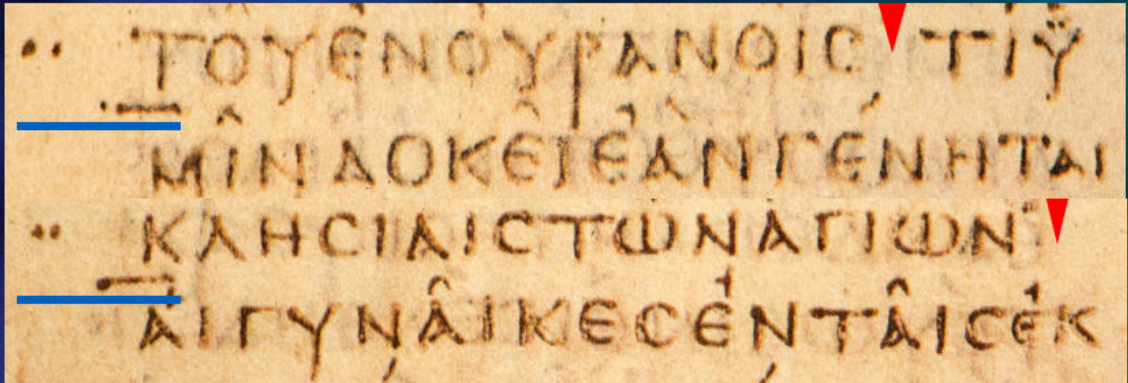
그 사이에 본문 연구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위에서 말한 저의 추측을 강하게 확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구절은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 제4판에서 해당 글을 가져옵니다.

제4판 서문에서 암시했듯이, 이 책의 6.2.8 단락은 보완되었습니다. 오래된 사본들과 관련하여 (적어도 저에게는) 새로운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필립 바턴 페인(Philip Barton Payne)은 이 주제를 깊이 연구했고, 다른 몇몇 본문 연구자들처럼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서는 34절과 35절이 우리 성경에 있는 자리에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서는 40절 뒤에 있습니다. 비교적 긴 본문이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다음과 같이 추측하게 합니다. 이 구절들은 나중에 삽입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여백에 적혀 있었고, 다음 필사자는 대개 그것을 본문에 넣었습니다. 앞에서 빠뜨린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넣을지는 필사자가 결정했습니다.

이 주장은 4세기의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코덱스 가운데 하나인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서 발견된 사실로 더욱 굳어집니다. 그 사본에서 이 구절들은 실제로 삽입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odex Vaticanus (4. Jahrhundert)
markiert 14:34–35 als eine störende Unterbrechung



2 Punkte + Strich zeigen einen störenden Textblock

Die **Roten Dreiecke** zeigen die **Lücke** genau dort an, wo der ursprüngliche Text unterbrochen wurde.

그림 출처: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이에 관해 이 주제를 선구적으로 연구한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본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이유와 이 구절들의 단어에서 나오는 아홉 가지 이유가 저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이 구절들이 바울의 원래 편지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절들의 명백한 의미는 ‘모두’가 가르치고 예언할 수 있다는 이 장의 진술들과, 여자들이 예언한다는 11:5의 확인과 모순됩니다. 둘째, 바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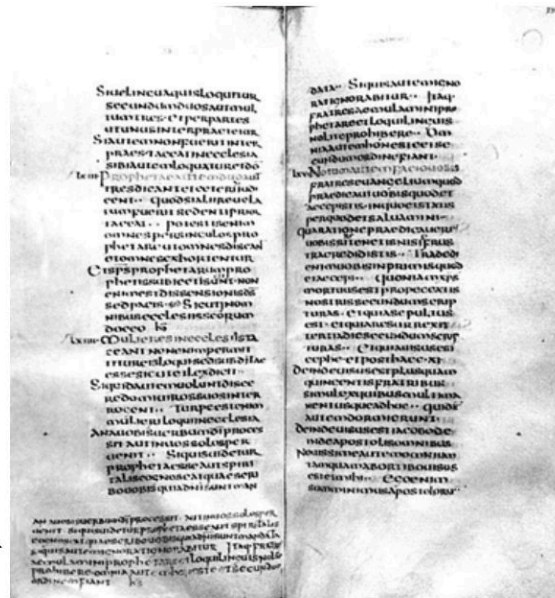
서신의 사본들에는 이만큼 긴 본문 단락이 (사본에 따라)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자리에, 그것도 뚜렷한 이유 없이 놓여 있는 경우가 달리 없습니다.

셋째, 가장 오래된 성경은 이 구절들을 후대의 진정하지 않은 첨가로 표시합니다. 첫째로, 이 구절들은 이 장의 다른 많은 진술과 모순됩니다. 모순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은, 바울이 방해가 되는 수다만 잠재우는 것이라거나, 1962년에 처음 제안되었듯이 예언을 판단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이 단락에서 세 번이나 힘주어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침묵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34절이 예언을 판단하는 것만 금지한다면, 그것은 35절이 금지하는 말까지 허용하는 셈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은 예언을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런 해석들을 따르면 바울은 자기가 방금 쓴 것과 모순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구절들은 모든 '서방' 헬라어 사본에서 40절 뒤에 나오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33절 뒤에 나옵니다. 여기 6세기의 유명한 '서방' 코덱스 D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첫 번째 온전한 문단은 14장의 끝입니다. 다음 문단이 34절과 35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15장이 시작됩니다. 34절과 35절이 놓인 서로 다른 두 자리는, 누군가가 이 구절들을 여백에 적었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원래 본문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본문들의 생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원래 본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울 서신의 어떤 사본도 큰 본문 덩어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이만큼 멀리 옮기지 않으며, 초기의 어떤 독자도 이 본문의 위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사자들이 여백의 글을 본문에 옮겨 적는 일은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 4세기의 바티칸 사본에는 마태복음 본문의 여백에 오래된 글이 적힌 곳이 20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군데를 빼고는 모두 그 뒤의 거의 모든 사본에서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자들이 공적인 모임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주후 200년 이전 어느 때에 어떤 독자가 이 구절들이 표현하는 '널리 알려진 통념'을 여백에 덧붙였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이 놓인 두 자리에 대해, 필사자들의 알려진 관행과 들어맞는 유일한 설명은, 누군가가 이 두 구절을 먼저 어떤 사본의 여백에 적었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한 일 - 여백의 글을 본문에 넣는 일 - 이, 다른 사례가 하나도 알려지지 않을 만큼 이례적인 일 - 그렇게 많은 본문을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게 멀리 옮기는 일 - 보다 더 일어날 법합니다. 셋째로, 정확성으로 널리 칭송받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성경인 바티칸 사본은, 교회에서 여자들을 침묵시키는 이 구절들을 진정하지 않은 거짓 끼어들음으로 표시합니다. 물론 34-35절이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어딘가에(곧 33절 뒤나 40절 뒤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매우 이른 시기의 삽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바티칸 사본만이 아닙니다. 빅토르(Victor) 주교는 풀다 사본(Codex Fuldensis)의 아래쪽 여백에 이 구절들을 뺀 수정 본문을 적게 했고, 비서방 본문인 사본 88은 이 구절들을 33절 뒤에서는 빼고 40절 뒤에 넣으면서, 이것들이 33절 뒤에 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붙였습니다. 이 구절들은 빅토르의 고린도전서 본문 증거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본문 증거에 나온다'는 댄 월리스(Dan Wallace)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https://bible.org/article/textual-problem-1-corinthians-1434-35>). 본문 학자들은 한 사본 안의 서로 다른 본문에 서로 다른 사본 기호를 붙입니다. 14:34-35 단락은 이런 별도의 사본

기호로 구분되는 모든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14:34-35의 본문이 모든 사본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In **Codex Fuldensis** (das Original liegt in Fulda) ist unten der Text ohne die Verse 34 und 35 als Korrektur oder Fußnote geschrieben worden. Dem Abschreiber lag in der Mitte des 6. Jhd. offensichtlich ein Text ohne diese Verse vor.



풀다 사본(F)은 신약 성경 정경 23권의 본문과 디아테사론, 라오디게아서를 담고 있는 불가타 사본입니다. 이것은 연대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신약 사본 가운데 하나이며, 중요한 학자인 카푸아의 빅토르 주교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초기 신약 사본입니다. 이것은 불가타 본문의 두 번째로 중요한 증거이며, 디아테사론의 완전한 본문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이 코덱스는 고린도전서 14:34-35 본문의 진정성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증거이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본은 541-546년에 빅토르 주교의 위임으로 카푸아에서 기록되었고, 그가 직접 검토하고 교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는 빅토르가 직접 쓴 546년 5월 2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빅토르는 이 코덱스의 본문을 두 번째로 검토했고, 그래서 두 번째 날짜인 547년 4월 12일도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 가톨릭 학자 조지프 A. 피츠마이어(Joseph A. Fitzmyer)는 '오늘날 해석자들의 대다수'가 이 본문[14:34-35]이 후대의 첨가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본문 학자 김 헤인스-아이첸(Kim Haines-Eitzen)은 '오늘날 거의 모든 학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마 가장 명망 있는 복음주의 본문 연구자일 고든 피(Gordon Fee)는, 이 구절들이 바울의 편지에 있지 않았고 어떤 사본의 여백에 덧붙여졌다가 후대의 필사자들이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의 책 *Man and Woman, One in Christ*, 226-227은 고린도전서 14:34-35가 바울의 원래 편지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는 연구 55편을 제시합니다. 227-53쪽에서는 이 본문이 바울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일곱 가지 외적 이유를, 253-65쪽에서는 아홉 가지 내적 이유를 제시하고, 265-67쪽에서는 난외 주석설에 대한 반론에 답합니다. 종합하면, 제 생각에는 본문비평적 증거가 이것이 아마 주후 197년 이전에 어떤 독자가 쓴 난외 주석이라는 쪽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최종 평가

이 주제를 매우 깊이 연구한 다른 저자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의 책 *Men and Women in Christ*에서 인용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34-35절을 삭제하는 것이 너무 손쉬운 해결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본문을 성경에서 삭제하자는 제안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이어야 한다고 올바르게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적 증거에만 근거한 비진정성 논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들의 문제가, 문맥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 구약 성경의 내용과 관련하여 명백한 오류를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의미를 주는 해석상의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본문에 그대로 두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앞으로 새로운 빛이 비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외적 증거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사본마다 서로 다른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외적 증거의 이 특징에 대한 가장 개연성 있는 해결책은, 34-35절이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본문에 들어간 초기의 난외 논평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풀다 사본(Codex Fuldensis)에 있는 빅토르(Victor) 주교의 표시로 더욱 확증됩니다. 그 표시는 이 두 구절이 완전히 빠져 있는 본문이 존재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의 증거에 대한 페인(Payne)의 견해가 옳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확증입니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합하면, 이 두 구절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증은 분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삭제하는 것은 이념적인 술수가 아니라, 증거를 따르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다른 첨가들(예컨대 마가복음의 결말, 요한복음 5:3-4, 사도행전 24:6-7)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본문에 나타나 한동안 우리 성경에 실렸다가, 입수할 수 있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마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자 제거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있어야 합니다. '사본상의 증거로 보아 34절과 35절은 바울에게서 오지 않은 후대의 첨가일 수 있으므로, 생략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34-35절을 기울임꼴로 표시하거나 각주로 옮기고, 사본들 사이의 불일치의 성격으로 보아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설명을 함께 붙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시편 19:7). 저는 이것을 진정성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34-35에서 자기 영혼이 별로 새 힘을 얻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껴 온 독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들은 어쩌면 아예 성경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쓸 때 이미 이 견해를 알고 있었지만, 이 본문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관계는, 이 두 구절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일까요? (인용설을 제외한) 모든 설명 시도는 이것이 절대적인 침묵 명령이라는 점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해석에서 설명 시도들은 이 요구의 명확성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자들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을 오히려 페미니즘과 세상에 순응한다고 비난하니 말입니다. 원수, 대적,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성경 안에 무언가를 몰래 들여오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모든 세기에 걸쳐 교회의 여자들과 교회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잘못된 전제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고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을 마치며 34절과 35절을 뺀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놓고 보면 본문이 얼마나 일관되고 의미가 잘 통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할 수 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제어를 받는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모든 모임에서와 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누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누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있으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일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31-33, 36-40)

예수님의 교회의 모임에서 여자들에게 주어진 침묵 명령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헬라어 지식이 없어도, 인용설이 없어도 이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을 동역자로 두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의지했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힘써 싸웠던 그 사도가, 정말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자매들이 침묵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이 입을 다무는 것에? 모임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보완하지 못하는 것에? 그것은 옛 뱀, 대적이자 파괴자,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오직 여자를 향한 그의 적개심만이 이런 눈썰미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남자들은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Hans-Jörg Ronsdorf

아우크스부르크, 2023년 9월 22일

주

1. Kelly, W., *Einführende Vorträge zum Neuen Testament*, XV, Faithlife, Bellingham, WA 2022, 11.
2. Grant, F. W., *The numerical Bible; being a revise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with expository notes: arranged, divided, and briefly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ir numerical structure: Acts to 2 Corinthians (Study Text)*, Loizeaux Brothers, Neptune, NJ 1901, 523.
3. Hole, F. B., *Grundzüge des Neuen Testaments*, Christliche Schriftenverbreitung, Hückeswagen 1989, 972–973.
4. MacDonald, W.,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Christliche Literatur-Verbreitung, Bielefeld 2018, 제7판, 761–762.
5. Strack, H. L. - Billerbeck, P.,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Oskar Beck, München 1922–1926, 제3권, 467.
6. Strack, H. L. - Billerbeck, P.,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Oskar Beck, München 1922–1926, 제3권, 469.
7. Henry, M.,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complete and unabridged in one volume*, Hendrickson, Peabody 1994, 2271.
8. Schlatter, A., *Die Korintherbriefe: Ausgelegt für Bibelleser*, VI, Schlatters Erläuterungen zum Neuen Testamen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Berlin 1954 (제2판), 154–155.

9. Morris, L., 1 *Corinthi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II,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1985, 192-194.
10. Ciampa, R. E. - Rosner, B. S., "1 Corinthians", i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Baker Academic; Apollos, Grand Rapids, MI; Nottingham, UK 2007, 743.
11.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철저한 변호는 Archibald Robertson,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앞의 책, 324-328쪽에 있으며, 인용설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Arthur Rowe. "Silence and the Christian Women of Corinth: An Examination of 1 Corinthians 14:33b-36". *Communio viatorum* (Ecumenical Institute of the Comenius Faculty, Prag) 33 (1990) 1-2: 41-84에도 있습니다.
12. Daniel C. Arichea. "The Silence of Women in the Church". *Bible Translator* 46 (1995) 101-112, 여기서는 102-104쪽.
13. 제가 아는 한, 고린도전서 14:34-36에 대한 인용설의 대표자로 연대순으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Jessie Penn-Lewis. *The Magna Charta of Woman*. The Overcomer Book Room: Bournemouth (GB), 1919 (아래의 1975년 재인쇄본 참조); Katharine Bushnell. *God's Word to Women*. 자비 출판: Oakland (CA, USA), 연도 미상 (약 1918); 같은 곳 1930, 189-215항; Katharine Bushnell. *101 Questions Answered: A Woman's Catechism - God's Word to Women*. Lowes Ltd.: Southport (GB), 연도 미상 (약 1930; 72쪽 분량). 23-26쪽; John A. Anderson. *Women's Warfare and Ministry: What Saith the Scriptures?* David Waldie: Stonehaven (GB), 1933. 20-26쪽; Katharine Bushnell. *Was sagt Gott der Frau*. Berlin, 1936. 약 130쪽 분량; Katharine Bushnell. *The Badge of Guilt and Shame*. Southport (GB) 연도 미상; Ernestine von Trott zu Solz. *Die Stellung der Frau nach der Bibel*. Landheim Salem e. V.: Asendorf, 연도 미상. 47쪽 분량. 33-37쪽; J. C. Hurd. *The Origin of I Corinthians*. Seabury: New York, 1965. 186-195쪽; Joyce Harper. *Women and the Gospel*. C. B. R. F. Occasional Paper 5. Christian Brethren Research Fellowship: Pinner (GB), 1974. 14-19+8-9쪽; Jessie Penn-Lewis. *The Magna Charta of Woman*. Bethany House Publ.: Minneapolis, 1975 (1919년판 재인쇄). 103쪽 분량. 21-34쪽; Walter C. Kaiser, Jr. "Paul, Women, and the Church". *Worldwide Challenge* 3 (1976) Sept: 9-12; Neal M. Flanagan, Edwina Hunter Snyder. "Did Paul put down women in 1Cor 14: 34-36?". *Biblical Theology Bulletin* (New York) 11 (1981) 10-12; David W. Odell-Scott. "Let the Women Speak in Church: An Egalitarian Interpretation of I Cor. 14.33b-36". *Biblical Theology Bulletin* 13 (1983) 90-93; C. H. Talbert. "Paul's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The Evidence of 1 Corinthians 12-14".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1 (1984) 95-108, 여기서는 105-107쪽; Chris Ukachukwu Manus. "The Subordination of the Women in the Church: 1 Co 14:33b-36 Reconsidered". *Revue Africaine de Théologie* 8 (1984) 16 (Oct) 183-195; David W. Odell-Scott. "In Defense of an Egalitarian Interpretation of 1 Cor 14.34-36". *Biblical Theology Bulletin* 17 (1987) 3: 100-103; Robert W. Allison. "Let Women be Silent in the Churches (1Cor. 14. 33b-36) What Did Paul Really Say, and What Did it Mea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T* 32 (1988) 27-60; Gilbert Bilezikian. *Beyond Sex Roles: A Guide for the Study of Female Roles in the Bible*.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 1989. 144-153쪽; Daniel C. Arichea. "The Silence of Women in the Church". *Bible Translator* 46 (1995) 101-112; 인용설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는 것: Jerome Murphy-O'Connor. "Interpolations in 1 Corinthian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8 (1986) 81-94, 여기서는 91쪽.
14. Neal M. Flanagan, Edwina Hunter Snyder. "Did Paul put down women in 1Cor 14: 34-36?". 앞의 책, 10+12쪽.
15. Daniel C. Arichea. "The Silence of Women in the Church". 앞의 책, 109쪽, 그리고 Chris Ukachukwu Manus. "The Subordination of the Women in the Church: 1 Co 14:33b-36 Reconsidered". 앞의 책, 189쪽.
16. Robert W. Allison. "Let Women be Silent in the Churches (1Cor. 14. 33b-36)". 앞의 책, 44-45쪽. Archibald Robertson,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앞의 책, 325쪽과 Daniel C. Arichea. "The Silence of Women in the Church". 앞의 책도 이 본문을 창세기 3:16과 관련짓지만, 바울이 창세기 3:16을 그렇게 이해했다(혹은 오해했다)고 봅니다.
17. Joyce Harper. *Women and the Gospel*. C. B. R. F. Occasional Paper 5. Christian Brethren Research Fellowship: Pinner (GB), 1974. 14-15쪽; John A. Anderson. *Women's Warfare and Ministry: What Saith the Scriptures?* David Waldie: Stonehaven (GB), 1933. 20-26쪽.
18. Joyce Harper. *Women and the Gospel*. 앞의 책, 14쪽 (탈무드의 메길라[Megilla] 편에서).
19. S. Aalen. "A Rabbinic Formula in I Cor. 14,34". 513-525쪽, 수록: F. L. Cross (편). *Studia Evangelica II. Texte und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87. Akademie-Verlag: (동)베를린, 1964.
20. Gilbert Bilezikian. *Beyond Sex Roles: A Guide for the Study of Female Roles in the Bible*.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 1989. 144-153쪽.
21. 같은 책, 145쪽.

22. 같은 책.
23. 같은 책, 147쪽.
24. 같은 책, 149쪽.
25. 같은 책.
26. 같은 책, 151쪽.
27. 같은 책, 248-249쪽.
28. 같은 책, 151-152쪽.
29. 같은 책, 248쪽.
30. C. H. Talbert. "Paul's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앞의 책, 105쪽. "Montgomery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early in the century"와 David W. Odell-Scott. "Let the Women Speak in Church". 앞의 책, 그리고 Neal M. Flanagan, Edwina Hunter Snyder. "Did Paul put down women in 1Cor 14: 34-36?". 앞의 책을 근거로 듭니다.
31. C. H. Talbert. "Paul's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앞의 책, 106쪽.
32. 가장 자세한 것은 Gottfried Fitzer. 'Das Weib schweige in der Gemeinde': Über den unpaulinischen Charakter der mulier-taceat-Verse in 1. Korinther 14. Theologische Existenz Heute 110. C. Kaiser: München, 1963;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앞의 책, 699-707쪽 (반대 견해: D. A. Carson. "'Silent in the Churches': On the Role of Women in 1Corinthians 14:33b-36". 140-153쪽, 수록: John Piper, Wayne Grudem (편).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Crossway Books: Wheaton (IL), 1991. 141-145쪽); 그 밖에: Jerome Murphy-O'Connor. "Interpolations in 1 Corinthian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8 (1986) 81-94, 여기서는 90-92쪽; Elizabeth Schüssler Fiorenza. Zu ihrem Gedächtnis. Chr. Kaiser: München, Grünewald: Mainz, 1988. 287-291쪽; G. W. Trompf. "On Attitudes Toward Women in Paul and Paulinist Literature: 1 Corinthians 11: 3-16 and Its Context".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2 (1980) 196-215; Karl Hermann Schelkle. "'Denn wie das Weib aus dem Mann ist, so auch der Mann aus dem Weib' (1Kor 11,12): Zur Gleichberechtigung der Frau im Neuen Testament". Diakonia 15 (1984) 85-90, 여기서는 87쪽; Hans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 über das Neue Testament 5. ¹²1981 (개정판으로는 ²1981). 해당 구절; (콘첼만에 반대하는 견해: C. K. Barrett.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 C Black: London, 1968. 333쪽, 그리고 Mary Evans. Women in the Bible. The Paternoster Press: Exeter, 1983. 95-96쪽).
33. 서방 본문의 모든 중요한 증거 사본에서 고린도전서 14:34-35는 고린도전서 14:40 뒤에 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해석자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앞의 책, 699-707쪽의 견해로도, 이것은 이 구절들이 후대에 덧붙여졌다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34-35절이 늦게 생겨났다는 본문비평적 근거를 더 제시하는 최근 연구로는 Philip B. Payne. "Fuldensis, Sigla for Variants in Vaticanus, and 1 Cor 14.34-5". New Testament Studies 41 (1995) 240-262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학술지에서 이어진 논의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반대 입장은 Curt Niccum. "The Voice of the Manuscripts on the Silence of Women: The External Evidence for 1Cor 14.34-5". New Testament Studies 43 (1997) 242-255에 있으며, D. W. Bryce.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Saints".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31 (1997) 31-39에도 있습니다.
34. Gottfried Fitzer. 'Das Weib schweige in der Gemeinde'. 앞의 책, 6-7쪽;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앞의 책, 699-701쪽.
35. 같은 책, 700쪽.
36. Jerome Murphy-O'Connor. "Interpolations in 1 Corinthian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8 (1986) 81-94, 여기서는 90-92쪽; 비슷하게 Jerome Murphy-O'Connor. 1 Corinthians. New Testament Message 10. M. Glazier: Wilmington (DE), 1979. 133쪽.
37. 예를 들어 Robert W. Allison. "Let Women be Silent in the Churches (1Cor. 14. 33b-36): What Did Paul Really Say, and What Did it Mea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T 32 (1988) 27-60, 여기서는 35-39쪽.
38. Fee, G.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edd. N. B. Stonehouse - F. F. Bruce - G. D. Fee - J. B. Gree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2014, Revised Edition, 780.
39. Schnabel, E. J.,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edd. G. Maier - H.-W. Neudorfer - R. Riesner - E. J. Schnabel,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 Neues Testament, SCM R. Brockhaus/Brunnen Verlag, Witten/Gießen 2018, 제4판, 842-845.
40. 논리학과 역사학에서는 침묵에서 끌어낸 결론을 라틴어로 Argumentum e silentio(침묵 논증)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언급되리라고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맥락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그

사실이나 사건이 실제로 없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